

YWCA 95주년 후원콘서트

YWCA (사)한국YWCA연합회

‘함께 행복한 세상’ You Are Not Alone

청소년 디자인 공모



주제 : 함께 행복한 세상 ‘You Are Not Alone’

혼자라고 힘들어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며, 서로 친구가 되어주는 ‘함께 행복한 세상’

시상내역 ※수상자 개별연락

- ▶ 최우수상 1팀 30만원
- ▶ 우수상 1팀 20만원
- ▶ 장려상 3팀 도서상품권 5만원
- ※ 콘서트(11월30일 오후7시 유관순기념관) 초청

디자인 분야

- ▶ 로고 500×500mm(일러스트 파일)
- ▶ 포스터 웹포스터 966×2378
- ▶ UCC 3~5분 이내(wmv, mp4)

응모방법

- ▶ 자격 14~24세(개인, 팀 가능)
- ▶ 기간 2017년 8월 20일(일)
- ▶ 접수 이메일 ywcamail@naver.com
- ▶ 문의 전화 (02)774-9702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관악구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한국 YWCA

2017년 7·8월호

July·August

Vol.542

기획

그 많던 YWCA 청년들은 어디로 갔을까
청주YWCA ‘일하고 참여하는 청년의 집’ 탐방

원로에게 듣는다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칼럼

기독교여성청년들의 고민과 반란

이달의 현장

나는 왜 페미니즘 목회를 하게 되었는가



최초의 YWCA 파출부 도입 '여성직업 교육' 역사가 되다



당시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하던 도배를 여성들이 교육받고 있다. 파출부 시험을 치르고 있는 지원자들의 모습

한국YWCA는 창립 초기부터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의 경제자립을 중요한 과제로 다뤘다. 시대변천에 따라 다양한 분야 여성직종을 개발, 직업에 대한 고질적인 성차별 개념을 바꿨다.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직업의식을 높이면서 여성권의 향상에도 기여했다.

1966년 서울YWCA는 한국 여성단체 최초로 '시간제 가정부'를 새로운 직종으로 개발, 지금의 돌봄서비스로 발전시켰다. 이른바 '식모'로 불리던 여성들이 전근대적 주종관계에서 벗어나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귀가하는 직업인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시민들은 필요할 때마다 훈련된 인력을 공급받는 파출부 제도를 크게 환영했다.

YWCA는 파출부 교육교재를 펴내 회원YWCA가 통합적으로 파출부 훈련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파출부 사업을 시작한지 10년만인 1977년에는 12개 YWCA가 실시할 정도로 주요사업이 되었다.

1970년대부터는 근로여성과 저소득층 여성, 소외 여성들에게 직업기술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1975년 국제개발처 후원으로 여성들의 직업현황을 조사해 남녀가 똑같이 할 수 있는 직종을 정리한 '여성의 새로운 직업'을 펴냈다. 이듬해 여성직업에 속하지 않았던 도배, 페인트, 타일 등 세 분야를 새로운 훈련영역으로 선정하고, 1977년 9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산YWCA가 여성 도배공 훈련을 실시했다. 이후 전국 YWCA로 확산되고 보석세공사, 설계제도사, 감골전정기술사 교육까지 이뤄졌다.

1960년대 유일한 여성전문 직업훈련기관이었던 서울YWCA 독산동 근로여성회관은 1993년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발전해 부산과 광주 등에도 설립됐다. '일하는 여성의 집'은 2001년 지금의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다.

2017.7·8 한국YWCA



표지이야기
'2017 여.세 아카데미'에 참석한 YWCA 회원들이 6월 30일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7년 9월 주요일정

9월 7일~8일
YWCA 어린이집협의회

9월 15일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협의회

9월 21일
YWCA 정책협의회

9월 22일~23일
전국 돌봄종사자 워크숍

9월 25일~27일
1단계 실무자 교육

제53권 제6호 통권 542호
2017년 8월 3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이명혜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백수경·백혜진·신선·정린·정선경
조하나·이경순·최수경·황혜숙
편집 박은실·신미희·이기원·문윤희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산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지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미래를 키우는 1만원, 1922 장학금 | 이종임
- 05 **말씀 묵상** 화해의 영성 | 김경은
- 기획 'YWCA 청년성'**
- 06 **기획①** 특별좌담: 그 많던 YWCA 청년들은 어디로 갔을까 | 편집실
- 10 **기획②** Y청년 아카데미 '머릿수 채우기'는 그만 | 김현수
- 12 **기획③** 청주YWCA '일하고 참여하는 청년의 집' 탐방 | 문윤희
- 14 **기획④** 마산YWCA 대학·청년Y '264명 회원증모' 비결 | 대학·청년Y
- 16 **칼럼** 기독교청년들의 고민과 반란 | 김수진
- 18 **성평등①** 페미니즘 운동의 변화 속에 YWCA 무엇을 할 것인가 | 임주현
- 20 **성평등②** 젠더관점에서 본 성폭력, 가정폭력 | 김은혜
- 22 **이달의 현장①** 나는 왜 페미니즘 목회를 하게 되었는가 | 나연수
- 24 **이달의 현장②** YWCA 여.세 아카데미 '나는 페미니스트였다' | 이보경
- 26 **이달의 현장③** 길위의 평화학교 '한라에서 백두까지' 4차포럼 | 강선임
- 28 **회원YWCA 활동현장을 찾아서** 서부지역협의회 평화통일 해외연수 | 최명희
- 30 **세계YWCA** 성폭력 근절을 위한 아시아YWCA 노력 | 김은영
- 32 **원로에게 듣는다**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 편집실
- 36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뮤지컬 '더 북(The Book)' | 최기영
- 38 **연합회 소식**
- 41 **회원YWCA 소식**

미래를 키우는 1만원, 1922장학금



이종임
한국YWCA연합회 장학위원회 위원장

올해는 한국YWCA가 창립한 지 95주년이 된 뜻깊은 해입니다. 95년이란 긴 세월 YWCA에서 활동한 많은 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지금의 YWCA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YWCA에는 '김활란 장학금'을 비롯해 선배님들의 기부로 조성한 소중한 장학금이 여럿 있습니다. 여기에 95주년을 맞아 YWCA를 상징할 의미 있는 장학금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나왔고, 창립정신을 기억하고 기리는 '1922장학금'이 탄생했습니다. 올해부터 100주년이 되는 2022년까지 해마다 1천명이 1만원씩 기부해 매년 30명의 청소년, 청년들을 키우는 장학금입니다.


YWCA는 그동안 젊은 여성들의 청년정신과 자원봉사 정신으로, 선배님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100년을 향해 한걸음 더 발돋움하기 위해선 미래 주역인 젊은 청소년, 청년들의 뜨거운 소명의식과 지도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저도 학창시절 Y-틴전국협의회, 대학 Y-틴 어드바이저 임원으로 활동하며 YWCA에서 봉사하고 헌신으로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하고, 나누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YWCA에서 보낸 그 소중한 시간이 제 삶에서 가장 보람된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족함에도 20년이 넘게 지

금까지 YWCA 자원지도자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YWCA를 이끌어갈 젊은 리더십이 절실한 때 '1922장학금'으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활동을 격려해주고자 합니다. 100주년까지 5년간 해마다 1천만원씩 모금될 'YWCA 1922장학금'은 올해 9월 Y-틴과 대학·청년Y 임원들에게 첫 활동장학금으로 전달됩니다.

이번 장학금이 앞으로 YWCA를 이끌어갈 Y-틴, 대학·청년Y 임원들에게 비전을 갖게 하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명혜 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실행위원, 명예연합위원, 실무활동가부터 대학·청년, Y-틴 회원까지 정성을 보태고 있습니다. 회원YWCA에서도 속속 성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동참한 YWCA 가족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올해 목표액이 좀 부족하여 장학위원회에서는 멋진 가방을 판매해 그 수익금을 장학금에 보태고 있습니다. YWCA 회원뿐 아니라 가족, 친지들에게도 널리 소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모금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1922장학금'이란 희망의 메시지가 젊은이들 꿈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화해의 영성



김경은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창세기 32장 20~32절, 33장 3~11절

야곱이 말하기를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 대면하면 나를 받아주리라...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관절이 어긋났더라 야곱이 이르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그 곳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과 대면했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야곱이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맞이하여 안고 서로 우니라

현대사회는 개인적, 사회적, 국제적 차원의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며 폭력이 심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안전을 갈망하고, 갈등해결은 소망이 되었다. 화해는 갈등해결이 필요한 모든 곳에 사용된다. 용서, 치유, 평화, 회복, 온전함, 구원 등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화해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설명하는 메타포(은유)이다. 이전엔 속죄와 구속이란 단어로 설명한 것처럼 시대에 따라 메타포는 달라진다. 현대사회를 설명하는 핵심용어는 상호공존, 차이의 인정, 관계성이다. 이에 따라 지금 구원사역은 화해로 표현된다.

일차적으로 화해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회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에서 완성되고 타인과의 관계로 확장된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 해방과 자유는 공동체, 사회를 향한다. 화해는 단순히 과거 회복에 그치지 않고, 관계의 치유를 의미하며 새로운 관계를 창조한다. 에서와 야곱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에서는 자신의 땅으로, 야곱은 새 인생을 시작했다.

화해의 영성은 관계회복에 대한 갈망과 지향성이다. 성부·성자·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아름답고 조화

로운 관계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 화해의 영성 추구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다.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스도인은 화해사역에 초대받았다.

화해의 과정은 정체성 변화를 요구한다. 싫은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동료, 친구,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화해사역자 레데라크(Lederach)는 “화해는 해방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고통의 강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했다. 야곱은 형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과 독대했고, 결국 하나님과의 화해로 브니엘을 경험했다. 기독교 화해사역은 내면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화해 배우기도 필요하다. 그 장소는 학교와 교회, 기관, 공동체 그리고 YWCA이며 화해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용서도 중요하고, 회개가 필요하다. 가해자의 회개는 피해자의 용서를 가지 있게 한다. 인간은 선택적으로 혹은 왜곡하여 기억한다. 올바르게 기억할 때 구원이 일어난다. 하나님 사랑과 임재 안에서 우리 기억이 전체 삶에 긍정적으로 통합될 때 현재와 미래뿐 아니라 과거가 구원받는다. 

그 많던 YWCA 청년들은 어디로 갔을까

YWCA는 1922년 20·30대 젊은 여성들은 청년성을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내걸고 YWCA 창립했다. 그들은 왜 청년을 강조했을까. YWCA는 올해 95주년을 맞아 청년성 회복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Y-틴, 대학·청년Y, 청년Y 출신으로 지금도 YWCA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활동가들이 모였다. 세대별 이야기를 통해 청년성, 청년활동을 진단하고 나아갈 바를 들어봤다.

좌담 2017년 7월 13일(목) 연합회
사회 **백혜진** 연합회 홍보출판위원장(1975 Y-틴전국협의회 회장, 1980 대학Y전국협의회 회장)
참석 **신 선** 연합회 홍보출판위원(1977 청년전국협의회 회장)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1989 대학Y전국협의회 회장)
정유진 연합회 대학·청년위원장(1994~1995 대학Y전국협의회 회장)
신보미 청주YWCA 간사(2014~2015 대학·청년Y재건TF, 연합회 실행위원)
글·사진 **신미희·이기원·문윤희** 홍보출판팀

변화의 힘은 '젊음'에서 나온다

YWCA의 첫 번째 정신은 'Young'입니다. 왜 청년성을 조직의 정체성으로 강조했을까요?

신보미 ▶오래가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청년성을 갖고 시대에 발맞춰 가는 정신이 지금까지 YWCA를 있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신 선 ▶창립 당시 암울했던 시절 젊은이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의 영향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의 적극적이고 역동적 도전의식을 지켜나가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 'Young'은 필연적이죠.

정유진 ▶물리적으로 '젊다'는 특성이 중요해요.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기성체제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를 보는 눈이 신선하고 민감하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룹이 청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유성희 ▶'청년'이라는 나이에 주목해야 해요. 문명 전환기에 YWCA 운동이 시작됐고, 예수님도 '문명 전환기에 변화를 이루는 에너지는 젊음에서 나온다.'고 했지요. 당시 식민지 사회에서 저항하고 도전할 수 있던 것은 젊기 때문이었고, 신앙과 연결되어 청년예수 정신이 YWCA 정체성으로 강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YWCA가 어떤 입장에 섰나 하는 고민은 있지만 'Young'을 이름에 넣어 청년이 주체가 되게 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일이에요.

Y-틴, 대학Y, 청년Y 출신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왜 YWCA로 왔나요?

신 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교회생활을 하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신문에서 YWCA 소식을 보게 됐어요. 교회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YWCA 활동과 청년연대 속에서 성취했어요. 생각



YWCA 청년 출신 활동가들이 청년활동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유진 연합회 대학·청년위원장, 신선 홍보출판위원, 백혜진 홍보출판위원장, 유성희 사무총장, 신보미 청주YWCA 간사.

이 되고 관계도 전국단위로 넓어졌어요. 사회적으로 이 름 있는 선배들과 활동하니까 배울 점들이 많았어요. 그 때만 해도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했고, 어른들과의 소통이 가능했어요.

백혜진 ▶1974년 Y-틴 활동을 시작으로 Y-틴전국협의회 회장, 대학Y전국협의회 회장을 했어요. 그 덕분에 20대에 실행위원도 했고요. 나도 YWCA에 가면 저런 여성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했죠. 훌륭하고 유명한 여성이 되고 싶었어요.(웃음)

정유진 ▶대학입학을 앞둔 1992년 2월 서울YWCA 정하희 관장님 소개로 당시 연합회 유성희 간사님을 만나서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꿔줬죠. 여름, 겨울방학 1주일씩 2년간 4단계로 진행된 훈련과정에서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던 인문학적, 사회학적으로 사회 보는 눈을 기르고, 기독교 성서연구를 포함해 왜 YWCA 운동을 해야 하는가를 배웠어요. 3학년 때 대학Y 서울협의회 회장과 전국협의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 뒤 연합회 인턴으로 시작해 대학 청년, 청소년 담당 실무자로 일했습니다.

신보미 ▶14살 때 어머니 권유로 Y-틴을 시작했는데 캠프만 따라다녔어요.(웃음) 그런데 재미있고 다른 단

체에서 하는 프로그램과는 특별한 뭔가가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게 뭘까 생각해보니 가랑비에 옷 젖듯 예수님의 사랑이 활동하면서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뿌리 깊은 엘리트의식'부터 버려라

YWCA 목적문은 '젊은 여성'을 주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YWCA의 핵심주역과 세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보미 ▶마음이 젊은 어른들?

신 선 ▶역사가 깊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진입하기 쉽지 않은 것도 있어요.

유성희 ▶'청주청년YWCA'를 만드는 실험이 흥미롭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주YWCA는 기존과 다르게 독립된 대학청년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5년 50주년 기념식에서 이미 '청년중심' 선언을 했고, 새로운 실험을 통해 청년들이 주역으로 활동할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YWCA를 거쳐간 젊은이들이 많은데 왜 YWCA에 머물고 있지 않을까요?



백혜진 홍보출판위원장 신선 홍보출판위원 정유진 대학·청년위원장 유성희 사무총장 신보미 청주YWCA 간사

정유진 ▶YWCA에서 길러진 리더들이 다음 장(場)으로 넘어가는 문이 좁아지는 게 아쉽습니다. 저와 함께 대학Y전국협의회, 지역협의회에서 활동한 친구들이 회원YWCA 간사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헌신을 다했지만 버티지 못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선배로서 YWCA 운동에 이끌었던 것에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요. 열정을 갖고 일하던 친구들이 YWCA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유성희 ▶YWCA에서 사람을 키운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청년을 볼 때 정말 '온 것만으로도 귀하게 생각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회원활동을 하다가 왔다면 다른 기회도 있는데, YWCA를 선택했다는 가치를 주기는커녕 건강하게 평가하지 않는 구조가 있었어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한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대중운동으로 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요.

YWCA 청년성에 위험신호가 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신보미 ▶안으로는 구조가 많은 것입니다. 대학·청년 활동 때 어떤 기획을 하면 먼저 간사님에게 이야기하고, 위원회에서 이사회로 또 이사회에서 임원회로 가는 복잡한 과정이 힘들었어요.

백혜진 ▶옛날 기준을 2017년에도 적용하는 것, 어른들은 익숙하나 젊은이들은 익숙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잣대, 엘리트층 우대하는 마음들, 운동에 대한 열정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점수를 주는 것 등이 있

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뿌리깊은 엘리트 의식이 있는데 벗어나야죠.

정유진 ▶YWCA 운동성의 부재요. 'YWCA가 어떤 영성과 사상, 철학, 가치로 운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저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상실하면서 껍데기만 남은 게 아닌가 싶어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YWCA 4개 이니셜에 들어있는 운동의 내용은 무엇이고, 지금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해결할 때 YWCA 운동이 살아나고 청년성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유성희 ▶한국사회 문제라고도 보는데 아주 강한 '나 이이즘' 같은 게 있어요. 가령 '18세 참정권 운동'의 경우 청소년들은 아직 잘 모른다는 인식이 있는 듯해요. 모두가 청년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동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YWCA가 민주적으로 평등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실험의 장이라면 실행위원회부터 '실험'에 대한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YWCA의 핵심주역은 여전히 젊은 여성 청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성희 ▶그렇게 가야죠. 그러나 YWCA가 고령화되고, 청년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노년층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해 앞으로 사회를 대비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두 그룹으로 나뉘어 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신 선 ▶청년이 YWCA 주류를 이룰 수 있도록 밀어주고, 연륜이 깊은 사람들은 위원으로 활동하고 지원해주면서 위원회 조직이 강화되면 얼마든지 수용이 돼요.

유성희 ▶그렇다면 동수내각처럼 숫자로 청년들이 절반 들어오고, 청년회의에서 나온 결정된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받는 구조적인 변화를 해야죠.

신보미 ▶그렇게 하면 청년들이 자기의 주체성을 나타내고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운동성' 찾아야 청년성 살아난다

YWCA는 깊은 역사만큼이나 조직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성 회복,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신 선 ▶내부적으로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야 해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실행위원회라는 시스템도 YWCA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흐름과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해요.

유성희 ▶젊은이들의 다양한 생각과 움직임을 YWCA가 받을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이 실수를 할까봐 겁을 내는 상황인데, 시스템이 잘된 조직이라면 허용되고 풀어질 수 있는 실험구조가 마련돼야죠. 청주YWCA처럼 대학Y나 청년을 별도조직으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실험을 하는 것도 사례입니다. 그럼 청년 회원들은 뭘 해야 하는가? YWCA 이름이나 유산 등 선배들의 지원을 과감하게 끊고 청년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간사들이나 청년들이 그런 도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유진 ▶지도력을 어떻게 발굴하고 키우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지도력이 좀더 체계적이고 시스템화 된다면 어느 경로로 들어오든 YWCA 안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참여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YWCA인데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김수진(참관, 대학·청년Y위원회 간사) ▶YWCA 안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해요. 청년이 주역이라고 하지만 '과연 청년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지금 청년들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초반까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을 살면서 정의가 승리했던 경험을 겪지 못한 세대예요. 청년들이 목소리를 냈을 때 통과되거나 개선된 적 없이 절망만 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YWCA도 청년들에게 자리를 많이 내어주지만 기성세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먼저 결론을 내고 "애들이 뭔가 해야지. 왜 안하니?" 하지 말고, 청년들의 상태가 이미 지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좋은 청년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년 중에도 청년성을 갖지 못한 청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들의 청년성을 회복해주고, 어른들도 청년성을 회복하는 세대운동을 펼쳐나가야 해요.

정유진 ▶돌아보니 대학시절 청년은 내 역량을 넓히고, 깊이를 갖고, 그릇을 넓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시각이 다 크지 않았다는 거죠. 청년을 주체로 세우지만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신 선 ▶교육과 훈련은 청년 자립의 큰 힘이에요. YWCA에 100명 오면 100명이 다 남는 게 아니잖아요. 10%만 남아도 큰 수확이죠. 직접 남지 않더라도 그 100명 역시 YWCA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한겨레21> 조사에서 우리 사회 청년들의 47.6% 정도가 '희망이 있다'고 했는데, YWCA 청년들은 87%가 '희망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보미 ▶YWCA가 이렇게 항상 청년문제로 끊임없이 고민하는 모습이 바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진 ▶어쩌면 희망을 가진 청년들이 YWCA로 모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YWCA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매력을 느끼는 조직이니 자신감을 갖고 청년운동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

‘머릿수 채우기’는 그만! 평소에도 청년에 관심을

김현수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운영위원(전주YWCA)

2017년 7월 8일, 전주YWCA 회관 민들레홀에서 ‘서부지역 Y청년 열린아카데미’가 열렸다. 광주, 목포, 여수, 전주 4개 지역 대학·청년Y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Y청년이 말하는 YWCA라는 주제의 토크콘서트도 마련되었다.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중앙임원 변민영(광주), 운영위원 홍연아(목포), 운영위원 김현수(전주)가 함께 한 토크콘서트를 통해 YWCA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 준비, 실행했다.

YWCA에서 청년운동이란 무엇인가.

“YWCA 구성원을 보면 어른과 청년, 청소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청년 운동은 하나의 틀을 짜고, 청년들이 그 틀 안에서 활동하는 것까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활동하는 청년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청년들이 책임감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갖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청년운동은 어떠하였는가.

“대개 활동계획의 80%가 정해져 있다. 프로그램 시간을 조정하거나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프로그램 등을 한두 가지 추가하는 정도가 청년들의 역할이다. 청년과 관련 없는 행사에 참여만 시키는 ‘머릿수 채우기’ 식도 많다. 청년행사조차도 청년들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른들의 가르침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만 청년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만들

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프로그램 완성도가 높아지고,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활동의 전문성이 길러질 수 있다. 청년을 주제로 세우는 청년운동이 되어야 미래세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YWCA 안에서 청년성은 무엇인가.

“청년만의 창의적이고 Young한 느낌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내고 젊은 감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열정이 담겨 있고 그에 따른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어야 YWCA 청년성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YWCA 조직의 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른들의 배려와 관심 그리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다.”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고민은?

“아무래도 행복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삶을 바라봐야 한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우



서부지역 Y청년 열린아카데미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Y청년이 말하는 YWCA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

선 요소를 보면 경제적인 부분과 자존감 등이 있다. 많은 청년들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을 자주 겪는다. 대학생까지만 해도 그런 경우가 적지만 취업준비생(취준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좌절을 많이 경험한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취준생은 1차 서류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하거나 계속된 탈락으로 무능력함에 자괴감을 크게 느낀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인 부분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일까? 고민은 되지만 해답은 모르겠다. 어찌됐든 취업 고민이 가장 큰 것은 사실이다.”

청년들이 처한 현실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잔인하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모님 세대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배려, 양보라는 말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취준생을 살펴보면 그들의 이력서는 크게 세 종류다. 먼저 좋은 학벌을 시작으로 각종 봉사활동, 인턴, 어학연수, 자격증으로 빼곡하게 적힌 이력서가 있다. 그리고 평범한 학벌과 특별하게 쓸 게 없거나 2, 3칸 정도를 채운 이력서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외활동이나 봉사활동 등 한 가지 활동으로 채운 이력서다. 청년들이 취업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이력서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이력서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대학생들은 어학연수, 해외 봉사활동, 자격증 공부, 대외활동, 인턴 등으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스펙을 쌓는데 열중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한 경쟁에 찌든 청년들의 모습 자체가 대한민국 청년의 슬픈 현실이다.”

청년들이 YWCA에 거는 기대나 바람이 있다면.

“청년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인 만큼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우리들 이야기를 들여다본다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한 편의 영화가 될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삶은 영화가 아닌 현실이다. 청년들이 고학력, 고스펙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일을 찾아서 그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고민해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작은 위로가 되어주었으면 한다. YWCA가 전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YWCA 청년부터라도 생각해주시는 것이 순서이지 않을까. 청년 이슈가 나올 때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자

글·사진 문윤희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얼른 나가!” “3년으로 할 걸…….”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빨리 나가라는 사람과 좀 더 있겠다는 사람. 청주청년YWCA 독립을 앞둔 풍경이다. 이해정 청주YWCA 사무총장은 “회관에서 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지난해 처음 남성 간사로 채용돼 화제를 모은 김광식 대학·청년Y 간사는 “조금 후회된다”며 웃었다. 3년 후 독립을 제안받았지만 김 간사는 “2년이면 되지, 뭘 3년까지 가겠느냐”고 스스로 기한을 줄였다. 그런데 예상보다 시간이 빨리 흐른다.

최근 YWCA 청년운동을 보려면 청주YWCA에 가 봐야 한다는 말이 생겼다. 청주YWCA는 2015년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과 시대주체가 ‘청년’임을 선언했다. 이례적으로 청년 독립공간이자 조직인 ‘청주청년YWCA’를 장기목표로 세우고 올해 ‘일하고 참여하는 청년의 집(일참청)’을 개관했다. 7월 14일(금) 청주YWCA에서 ‘일참청’ 조수정 회장과 송소연 총무, 서형원 대학·청년Y전국협의회 운영위원, 이주안 대학·청년Y전국협의회 중앙임원과 김광식 간사, 이해정 사무총장을 만났다. 청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일참청’은

넓고, 밝고, 자유로운 청년 분위기 자체였다.

YWCA는 ‘청년단체’

1922년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의 21살, 24살, 31살 청년여성 3명은 한국YWCA를 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김활란, 유각경, 김필례가 그 주인공이다. 그들은 작은 사무실을 얻어 모이다가 월세방으로 옮겼다. 지금 청주YWCA 일참청의 모습과 흡사하다.

2014년 청주YWCA 이사들과 청년, 담당 실무자들이 ‘청주청년Y 설립TFT’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작은 관심에서 시작했다. 당시 담당 간사가 대학·청년Y 활동으로 느낀 점을 모아서 올렸고 한 청년의 발표가 영향을 줬다.

조수정 청년은 서울 청년공간인 ‘무중력시대’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 정보를 찾고 이사회에 조사내용을 발표했는데 뜻밖에도 많은 이들이 청년공간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주체적인 청년활동을 만들려면 어떤 구애나 방해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활동하는 공간이 우선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청주청년YWCA도 처음엔 외부로 나가려 했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다. 청주YWCA 회관에서 활용할 만한 공간을 찾았고, 올해 2월 공사가 끝나고 3월 정식으로 ‘일참청’을 열었다.

‘일하고 참여하는 청년의 집’이란 명칭은 ‘청주청년Y 설립TFT’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나왔다. 청년문화 공동체, 일터, 참여, 사회적 영성추구라는 4가지 가치로 청년들만의 문화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 일과 삶이 별개가 아니라 창업을 넘어 창직할 수 있는 청년들의 새로운 일터가 되는 공간, 단순 친목이 아닌 청년문제와 사회문제 참여를 이끌어내는 공간, YWCA 목적에 맞는 기독청년들이 사회적 영성을 나누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기성세대도 몸살을 앓았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해정 사무총장은 “특별한 게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많은 토론과 연구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진통도 있었다. 이사·위원 연구모임에서 “청년들은 어떤 지도자인가”란 이천진 목사의 질문에 으레 생각하듯 모두 “미래 지도자”라고 답했다. 이 목사는 “왜 미래의 지도자냐, 오늘의 지도자”라며 “자리를 내주고 싶지 않으니가 자꾸 미래라고 미룬다”고 호통쳤다. 모임 후 “몸살이 났다”는 분들도 있다.

청주YWCA는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2월까지 1주일에 한 번 모여 청년YWCA가 왜 안 되는지 끊임없이 논의했다. 반복된 이야기는 학습과 생각의 전환으로 이어졌다. 이해정 사무총장의 말처럼 “청년운동은 기성세대들이 변하는 운동”이 아닐까.

편안하고 자유로운 청년공간인 ‘일참청’이 생긴 뒤 청년들은 더 자주 모인다. 밖에서 얘기하면 쓸데없이 취급받는 이야기도 여기선 의미 있는 공유가 된다. 비어있을 땐 공부하러 오기도 한다. 청년들이 없는 낮엔 ‘사람 냄새가 나도록’ 청주YWCA 프로그램도 열린다. 단, 무조건 청년 ‘우선’이다.

2016년 청주 대학·청년Y는 3개 동아리로 활동했다. 올해는 ‘일참청’으로 묶어 회의하고 관심 분야를 나뉘


다.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의논하고 추진했다. 경험이 없어 속도는 더디다. 밖에서 봤을 때 하는 게 없다고 할 수 있다. 김광식 간사는 “작은 활동이지만 하나하나 밟아가며 성장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밖으로 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의미 있다”고 말했다. 아직 적은 인원이고 느린 걸음이지만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걸?!

청년들에게 고민을 물었다. 그들은 기대보다 걱정이 가득했다. 서형원 운영위원은 “청년세대는 도전 자체가 집이 된다. 완충지대가 없고 한번 시도하고 떨어지면 실패에서 벗어나기 어렵기에 모두 안전한 직종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청년들이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창업뿐만 아니라 취업, 결혼도 마찬가지다. 취직을 못하거나 해고당하면 낙오자가 되고 창업에 실패하면 빚더미에 앉는다.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에서 ‘왜 도전하지 않냐’, ‘왜 질문하지 않냐’고 묻는다면 이것은 기성세대의 또다른 폭력이라고 청년들은 생각한다.

청주청년YWCA는 청년들에게 ‘실패할 기회’를 먼저 주고자 한다. 회원모집을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으면 실패다. 그러나 몇 명을 모집했는지 연연하지 않고 15명의 청년이 작은 것부터 이뤄나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엔 회의한 것이 전부다. 회의하고 또 회의했다. 결과물을 달라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실패가 아니다. 그 자체가 과정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 지원이 아니다. 그들은 ‘실패할 기회’를 원한다. 청년들의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가 청년이 바라는 미래다. 청주YWCA로부터의 독립, 청주청년YWCA는 청년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YWCA 최초의 도전을 하고 있다. 우리의 첫 번째 역할은 그들의 실험을 기다려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올해 청주YWCA 회관에 문을 연 '일하고 참여하는 청년의 집' 내부



청주청년YWCA 회원들이 '일참청'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청년 264명 모았다, 이거 실화냐?

취재 최선화·이혜린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글 문윤희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올해 대학·청년Y의 가장 큰 화제는 마산YWCA 대학·청년Y가 청년회원 264명을 모은 소식이 아닐까 싶다. 기록적인 회원증모로 '파란'을 일으킨 주역을 찾아 마산으로 향했다. 1966년 창립한 마산YWCA는 올해로 51주년을 맞았다.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최선화 회장과 이혜린 총무가 감종민 마산YWCA 대학·청년Y 회장, 청년담당 박주옥 부장을 만났다. 1975년부터 시작한 마산 대학·청년Y는 경남대학교 중앙동아리 '터울거리'로 활동하고 있다. 42년이 넘었으니 마산YWCA만큼이나 역사가 깊다. 터울거리는 '목적은 이루기 위해 몹시 애를 쓰다'는 뜻의 '터울대다'에서 따왔다. YWCA 정신을 이어받아 대학과 우리 사회에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 요즘은 '낙동강 살리기' 활동에 힘쓰고 있다.

감종민 회장 “YWCA가 내겐 진짜 학교”

YWCA에 어떻게 가입하게 되었는가.

“학교생활만으로 재미가 없어서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었다. 학교 게시판에 마산 대학·청년Y 공지를 본 친구 권유로 가입했다.”

계속 활동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YWCA에서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많이 배운다. 3월 대학·청년Y 동부지역협의회 경험이 가장 크다. 회의진행이 처음이라서 자문을 구하고, 대본까지 써서 준비했다. 그런데 완전 망했다(웃음). ‘지역경제 살리기’로 자료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낙동강 살리기’로 바뀌었다. 멘붕이었다. YWCA를 배우고자 마산에서 열린 Y-틴 전국협의회 회의를 참관했다. 회의진행 방식을 배웠고, YWCA가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곳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 시대 청년의 진짜 현실은 어떠한가.

“자기 삶이 바빠서 문제를 알면서도 뒷전으로 미루는

것 같다. 닥친 상황에 급급하다 보니 ‘내 일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 청년들이 조금만 더 미래를 생각한다면, 좀더 나은 미래를 다음세대에 넘겨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YWCA는 감종민에게 어떤 곳인가.

“내겐 YWCA가 진짜 학교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며 다양한 생각과 방법을 배운다. 특히 실천을 배울 수 있어 좋다.”

올해 264명 청년회원을 모았다. 다들 진짜냐고 물을 정도인데.

“발로 뛰었다. 포스터와 피켓을 많이 만들었고 현수막도 제작했다. 페이스북 페이지 ‘경남대학교 대신 말해 드립니다’ 등 SNS를 활용했다. 동물 잠옷을 입고 피켓을 들고 돌아다녔다.

철관 깔고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갔다. 두 명씩 붙어 설명했다. 개강 첫 주 4일을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홍보했다.

‘태진아 닳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오히려 ‘가수 있는’ 동아리라고 홍보했다(웃음). 학교에서 봉사분

과장인데 동아리 가입문의가 오면 YWCA를 추천했다. 500여명이 지원했는데 회비 1만원을 내야 한다는 말에 절반이 나갔다. YWCA 활동에 대한 설명을 끝내니 264명이 남았다.”

회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전체 회원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한다. 친목

도모를 위해 매월 첫째 주 목요일마다 오프라인 모임도 한다. 많을 때는 20~30명이 모인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

“늘 생각에 그치고 실행이 어려운데 YWCA에서 많이 경험하고, 실천하고 싶다. ‘낙동강 살리기’ 활동은 정말 낙동강이 바뀔 때까지 하고 싶다(웃음).”

박주옥 부장 “젊은 생각 접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청년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올해 3월부터 대학·청년Y를 맡았다. 길진 않지만 다양한 청년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청년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보람을 느꼈다. 청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 대한민국 미래 주역이 YWCA를 통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청년활동을 지원하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회원 대부분이 봉사점수 때문에 가입했다고 말한다. 청년들에게 YWCA는 봉사점수를 주는 기관인 것만 같아 안타깝다. 지난해 청년들이 방진복을 입고 탈핵캠페인에 참여했다. 이후 많은 친구들이 탈퇴했다. 탈핵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탈핵강의를 준비했는데 만족도가 낮았다. 청년들은 활동적인 것이 좋다고 했다. ‘이렇게 기획하면 청년

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청년들은 차려진 밥상을 싫어하더라.”

YWCA 청년들을 직접 만나본 소감은.

“YWCA의 ‘Y’를 느낄 수 있다. 20대 청년들은 파격적이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해낸다. 청년들의 젊은 사고를 계속 접해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감종민 회장과 청년들을 보며 느낀다.”

청년에게 YWCA는 어떤 곳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YWCA 회원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청년들에게 인상적인 추억이 되었으면 한다. YWCA를 통해 나와 이웃, 지역을 넘어 한국사회 전체를 보고 YWCA 목적을 이해하면 좋겠다.”



박주옥 마산YWCA 부장, 감종민 마산 대학청년Y 회장,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최선화 회장과 이혜린 총무, 문윤희 홍보출판팀 인턴(왼쪽부터)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나는 '참자매'도 '사모감'도 아닙니다

교회안팎으로 여성혐오가 난무하는 시대 청년여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한국YWCA 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가 6월 22일 주관한 기독여성주의 연구모임은 20대 기독여성들의 삶과 고민을 들어봤다. 이 글이 모든 20대 기독여성의 상황을 대변하거나 그들이 마주하는 차별과 혐오에 당장 해답을 내놓지는 못한다. 그래도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좌절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믿음을 나누고자 한다.



김수진
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위원회 간사

나만 웃을 수 없을 때

이제야 말하지만 나는 페미니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고, '페미니스트'라고 불리기 싫던 사람이었다. 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는 여대이기에 행여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페미니스트'로 볼까봐 두렵기까지 했다. 누군가 나에게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하면 '난 관심 없어'라고 말하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성이면서 어떻게 '여성인권에 관심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런 나의 삶은 여성신학에 입문하면서 조금씩 금이 생겼다. 여성신학을 통해 다시 만난 기독교는 더욱이 내 신앙을 풍성하게 해주었고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런데 학교 밖에만 나서면 자꾸만 나는 '예민한 사람'이 되었고,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특히 교회에서 나는 '기가 세고', '말 많고', '까탈스럽고', '예민한', '여대생(특히 이대생)'이었다. 그리고 시시한 농담도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분명 말도 안 되는 성적 농담이었다) 모두가 괜찮다고 하는데, 나만 '유난 떠는 사람'이었다. 목사안수도 못 받을 '여자 신학생 주

제'에 '갈등을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는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고 '떠들어댔다'. 그러던 어느 날, 모두가 웃으며 했던 그 한마디를 듣고 나는 쓴웃음조차도 짓지 못한 채 그 길로 교회를 떠났다. "수진이는 순종 빼고 다 잘하는구나."

친절하게 단정하게 조신하게, 예쁘면 더 좋고

기독여성들은 답답한 교회 현실에 경멸을 느끼며 떠나거나 입을 다물고 살아간다. 교회는 특히나 가족중심적이고 성 역할 구분이 엄격하다. 그렇기에 비혼이거나 이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성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해 여성들을 주변부로 밀어낸다. 결혼을 기준으로 청년부에서 장년부로 소속이 바뀌는 교회 분위기는 비혼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결혼적령기를 넘어서도 비혼 상태인 청년들은 원하지 않아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여전히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존재'라는 인식이 설교를 통해 끊임없이 생산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해야 한다. '참자매' 담론과 '사모감' 담



- 사모의 유형
 - 가정중심 내조형
살림하며 조용히 내조
(살림, 기도, 양육동행 등)
 - 세계 평화형
성경·사모역할 병행
(피아노, 교습, 학습지 교사 등)
 - 목회 매니저형
남편 목회 전방위 지원
(알림·안내관리, 설교자료 수집 등)
 - 전문인형
전문직업으로 자아실현
(의사, 변호사, 교사, 자선 등)
 - 동역자형
교우 역할로 목회자와 협력
(기성상담사, 독서지도사 등)

론은 교회와 신학교에서 지금까지도 무성하다. 남자들이 말하는 '참자매'와 '사모감'은 친절과 미소, 순종의 완전체다. 하나 더, 예쁘면 더 좋고. 신학생이었던 나에게 '사모감' 담론은 경악 그 자체였다. 나는 그저 다양한 주제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과 즐겁게 교제 나누는 게 즐거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남자 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소명의식으로 신학공부를 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의 공부는 '사모 수업'이었고,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은 훗날 남편 목사의 개척을 돕기 위해 취득한 것이 되어버렸다.

연대하는 20대 여성들 '믿는 페미'

나는 교회를 떠났다. '여성혐오'가 판을 치고, 변화 가능성이 없는 교회를 떠나 살았다. 그런데 '믿는 페미'라는 모임을 알게 되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왜 떠나야 해? 여기를 바꾸겠어!'라고 생각하며 교회 안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서적 지지공간이 되고자 생겨난 모임이다. 각각 떨어져 있지만, 숨어 있는 '믿는 페미(믿는 페미니스트)'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어 세 사람으로 시작된 모임이다. 이들을 통해 내가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싸우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다. 나는 '참자매'도 '사모감'도 아니며, 교회에서 내가 튕겨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도망치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지만 남아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페미니스트다. 그리고 신앙인이다.

정말,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페미니즘이 여성 차별과 폭력에 저항하며 당연한 여성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긴 하지만, 페미니즘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증진이나 이익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불균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젠더 이분법에 의해 고통받는 것은 여성만이 아니다. 실제로 사회가 규정하는 '이상적 남성'에 도달하지 못하기에 소외되고, '남성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배제당하며 고통받는 남성들도 적지 않다. 페미니즘은 이러한 고통과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움직임이다.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 여성을 혐오해야지만 남성으로 존재하게끔 하는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 연대해야 할 사람들 또한 '남성'이다. 아직 본논가 잔잔해지지 않지만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페밍아웃(페미니스트+커밍아웃)'하는 사회를 기대해본다.

페미니즘 운동의 변화 속에 YWCA 무엇을 할 것인가

임주현
안산YWCA 사무총장

회원YWCA 활동력을 높이기 위한 경기지역 역량강화 워크숍이 6월 23일(금) 한국YWCA연합회에서 열렸다. 권김현영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최근 한국사회 성평등운동의 흐름 및 방향', 최미정 경기여성연대 정책위원장이 '성평등운동 주요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새로운 흐름과 YWCA 운동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무참히 살해된 여대생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과 언론은 한 남자의 정신적 질환에 의한 우발적 사고로 규정했다. 그러나 많은 여성단체들과 여성들은 우리 사회 만연한 여성차별과 여성폭력이 초래한 '여성혐오' 범죄로 판단하고, 강남역에 모여 추모하고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를 계기로 안산지역에서는 '여성혐오와 메갈리아 현상'을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일상의 광범위한 여성혐오와 이에 대응하는 영영페미니즘 활동이 소개되었다. SNS에 기반한 영영페미스트들의 활동에 관심이 갔다. '메갈리아' 논쟁으로 한때 영영페미니즘이 급진적이라는 오해도 받았으나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페미니즘을 열고 있다고 느꼈다.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페미니즘 운동의 새로운 변화를 YWCA에서도 함께 배우며 고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YWCA 성평등운동은 기존 진보 페미니즘과는 지향, 대상, 방식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

서 가장 오랜 여성운동 역사를 지닌 YWCA가 페미니즘 흐름과 아젠다를 이해하는 것은 정책과제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일이다.

첫 번째 강연 주제로 '최근 한국사회 성평등운동의 흐름과 방향'을 권김현영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위원 및 성공회대 외래교수에게 요청했는데, 그에게 되돌아온 제목은 '혐오의 시대, 전환의 정치학으로서의 페미니즘'이었다. 사실 페미니즘 이해와 해석에 대한 YWCA 안의 편차는 크다. 이를 반영해 YWCA 5대 정책과제인 성평등운동으로 강연 제목을 정리했다.

전환의 정치학으로서 페미니즘

권김현영 교수는 한국사회 페미니즘의 주요 이슈, 성주류화, 성정치와 페미니즘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1997년 이후 한국경제 구조에서 나타난 여성들의 문제를 살펴봤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급격히 어려워졌고, 사회문제로 확대 재생산되며 최악의 출산율과 이혼율로 이어졌다. 한국사



경기지역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가한 YWCA 활동가들



권김현영 교수가 강의하고있다.

회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한국사회를 재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까지 이르렀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북유럽국가들의 정책을 연구했으나 가부장적 의식을 벗지 못한 정책입안자들은 이를 수용하지 못했다.

스웨덴의 인구단위 기본은 이미 가족이 아닌 개인으로 바뀐 지 오래다. 미혼, 싱글, 동성커플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지원으로 출산율도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가족해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가족지원, 이혼숙려제, 다문화가족을 위한 국제결혼 등 해체된 가족을 복원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실정이다.


여성 경제활동 지표는 더욱 심각하다. IMF 이후 여성들은 대거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 소수 전문직을 제외하고 여성의 주체적 경제활동은 더 어려워졌고 많은 여성들이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에 종사함으로써 여성 빈곤화는 심화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성관련 지표 최하위는 한국의 몫이 되었다.

여성을 상대로 한 충격적인 사건들과 여성폭력, 성매매 문제 등은 여성단체들의 오랜 투쟁을 통해 법적인 틀 마련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는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양산했다. 전환의 정치학으로서 페미니즘의 목표는 지배와 압

제의 가부장적 체계와 개인적 관계에서의 억압을 종식 시키는데 있다.

권김현영 교수는 혐오의 시대 전환의 정치학으로서 페미니즘 방법과 원칙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① 여성은 다양하다. 여성의 정체성은 섹스, 인종, 계급 등 다양한 사회관계에 기반한다. ② 차이는 중요하다. 차이가 더 많은 갈등을 낳는다고 해도 토론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③ 더 작게 나뉘어져 더 많이 토론하라. 작은 집단 내 토론은 효과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은 토론을 인간적으로 만든다.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 기회를 얻게 되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 ④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사랑은 타자를 이해하기 위한 욕망과 그들을 동등하게 대하려는 의지이므로 변화의 촉매가 된다. YWCA 운동과 닮아 있다.

나는 YWCA가 진보적이지는 않으나 대중의 눈높이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페미니즘운동을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YWCA는 여성주의에 대한 다양한 고찰을 하고 있다.

최형미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위원은 YWCA 페미니즘 운동을 '에코 페미니즘 운동'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페미니즘 운동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YWCA 여성운동이 무엇을 할 것인지 찾아야 한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계속 질문해야 할 것이다. 

불평등과 차별, 젠더폭력을 낳는다

김은혜
논산YWCA 아름다운 소장

한국YWCA연합회는 7월 13일(목) 제3차 여성폭력관련 시설장 워크숍을 연합회 강당에서 열었다. 김은경 연합회 성평등위원장의 여는 예배로 시작해 젠더폭력방지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허민숙 한국여성연구원 교수가 젠더폭력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 성폭력을 강의했다. 마지막은 YWCA 95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여성평화 상징물 제작을 위한 공감마당으로 영화 '어폴로지'를 함께 보고 마무리했다.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

먼저 젠더폭력방지 관련해 여성혐오 현상과 관련 대책부터 살펴봤다. 여성혐오에 대한 우리 사회 문제의식은 지난해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크게 확산되었다. 여성혐오는 어느 개인의 심리상태나 질병의 문제가 아닌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삶의 주체로서 존중하지 않는 차별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며 사회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향해 분출된 것이다.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 정책간담회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여성혐오 대책을 문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스토킹과 인신매매, 데이트폭력, 사이버폭력,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 등 점점 다양해지는 젠더폭력에 대해서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며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다. ▲젠더폭력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해 정책수립과 다른 기관과의 업무조율 등 통합적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디지털범죄 3대 신종 젠더폭력방지 매뉴얼 마련 등 대책에 힘쓰고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하

며 ▲여성혐오 혹은 젠더폭력을 사회전체 공존과 평화와 관련된 문제임을 직시하고 성평등 문화와 인식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이같은 약속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실현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한국YWCA는 7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정책 약속 이행을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총괄기능을 하도록 기획하라는 것이다.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 각 부처의 관련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강화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 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등 성주류화 도구가 확대강화된 성평등위원회를 말한다.

둘째, 공직인사 검증기준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인사검증 기준엔 성평등 관점이 없는 현실이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저서를 통해 여성을 상품화하고 여성혐오적이고 남성중심의 왜곡된 성관념을 드러내 여성계를 넘어 비판과 사퇴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청와대가 즉각 조치하지 않는 것도 성평등 관점의 부재로 볼 수 있다.

셋째, 초기 내각구성의 여성비율 30% 미달을 지적하



제3차 YWCA 여성폭력관련 시설장 워크숍에서 허민숙 교수가 젠더폭력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고 약속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최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으로 여성장관 비율이 30%에 이르렀지만 초기 인선 당시 17개 부처 장관 중 여성은 4명에 그쳤다. 그러나 차관을 포함한 각종 정부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은 아직도 크게 낮은 상태다.

이날 참석자들은 YWCA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이런 과제를 어떻게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토론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각자 일은 많고 바쁘지만 서로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함께 드러내고 말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여성폭력관련 시설장들도 공감하면서 앞으로 문제의식 공유에 더 적극 나서자고 뜻을 모았다.

젠더에 기반한 폭력


허민숙 교수는 “젠더폭력은 불평등에 의해 일어난 포괄적인 성폭력 개념으로 신체적, 성적, 정신적, 경제적 착취를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젠더폭력은 여성의 종속적인 사회적 지위에 원인을 두고 있으며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사회적 권한과 권력의 차이), 차별의 결과로서 폭력, 문화적 지배로서 폭력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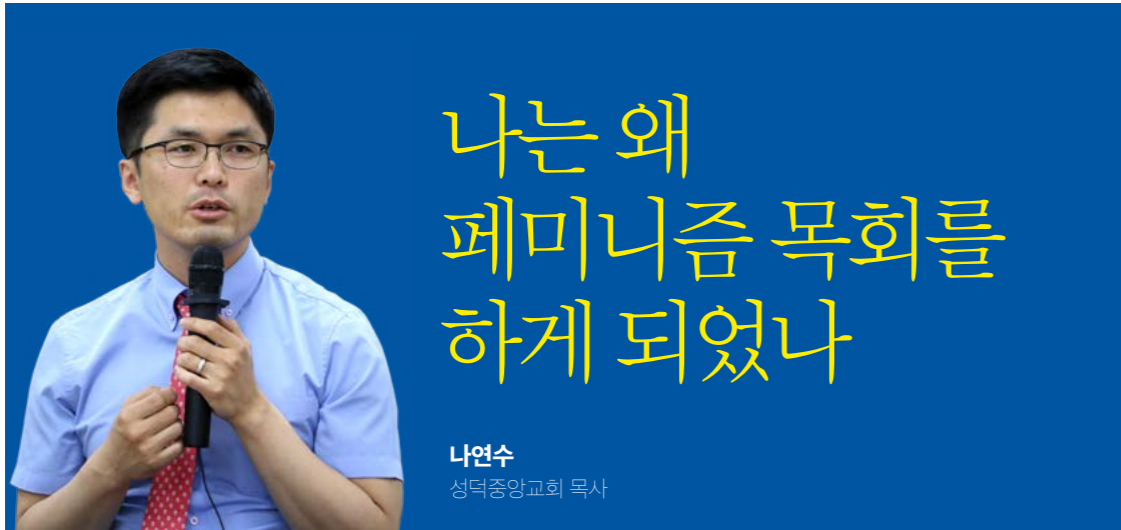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는 여성의 정치적 권한의 부족, 정치적 저(低)대표성은 여성의 경험과 입장이 법과 제도라는 공적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배경

이자 직접적 원인임을 보여준다. 의사결정 부분에서 여성의 취약성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지속하거나 증가하는 요인이 되며 미비하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불평등과 차별에 의한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은 여성이 폭력에 취약해지는 결정적 원인이기도 하다. 노동시장의 저임금, 불안정 고용은 결국 여성의 열악한 지위가 되고 여성이 자신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 남성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환경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친다. 성차별은 여성이 경험하는 젠더폭력의 원인이지만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 즉 젠더폭력은 차별의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적 지배란 특정그룹에 대한 불인정, 경시를 뜻하는 것으로 문화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젠더에 기반한 폭력은 불평등과 차별이 원인이며 이런 상황에서 분노와 좌절보다는 오히려 여성들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허 교수는 주문했다.

영화 ‘어폴로지’ 상영을 통해서서는 전쟁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고, 전시 성폭력 범죄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시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YWCA가 95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여성평화 상징물 제작을 위한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여성이 불안한 시대, 기독여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매달 열린 기독여성주의 연구모임이 6월 22일(목) 5차 모임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이날 나연수 목사의 발표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세월호, 신학을 흔들다

페미니즘을 접하게 된 계기는 세월호 침몰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문자주의와 근본주의에 가깝던 제 신학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해서 광화문에 나가 예배 인도도 하고, 유가족에게 인사라도 하고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도했고, 간절해졌고,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외쳤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 머물며 참 막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눈도, 설교 주제도 달라졌습니다. 마가복음을 지속적으로 설교했는데 10장을 보면 “죄인들의 세상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마음대로 하고, 어른이 아이들을 함부로 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무시해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마침 이 주제를 설교할 무

렵,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놀란 건 “시국이 어지러운데 남자와 여자가 편을 가르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일부 교회청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였고, 그동안 폭력을 당하거나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던 무수한 여성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남녀가 편을 나누어 싸우고 있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책을 읽고, 청년들과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해 처음 접한 책이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였습니다. 그 안에 묘사된 남성의 모습은 영락없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남성중심 사회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적잖은 여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이게 진짜 문제구나”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작은 자’를 생각하다

이런 고민을 청년들과 공개적으로 나눴고, 함께 책을 읽으면서 우리 생각과 행동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7-8명의 청년들이 모여 ‘젠더와 사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후 페미니즘 주제로 여름수련회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책모임 2기를 만들었고 10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주일 설교에서 용기를 내어 여성주의가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 이외에도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으로 ‘성차별은 사람을 죽이는 나쁜 죄’라는 주제 설교와 함께 청년들은 여성들이 일상에서 당하는 성차별을 짧은 드라마로 무대에 올렸습니다.

1년 정도 페미니즘을 외치면서 다양한 반응을 접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청년들이 페미니즘은 나와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성차별 없는 가정과 교회,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크게 기쁜 것은 책모임과 설교를 통해 여자 성도들이 공감하고 위로받은 일입니다. 한 장년의 여성도는 “그동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일이 잘못된 것이라 들으니 위로받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이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심한 성차별을 받아왔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 또한 위로받았습니다.

좋은 반응만 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외모를 칭찬하는 게 왜 성차별이냐”, “여성상위 시대로 역차별도 만만찮게 있는데 그런 주제도 다루냐”며 수시로 탄핵을 걸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 교회에서 해도 괜찮을까요? 설교하고 잘리는 건 아니죠?”라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청년부 교사 집사님은 “목사님이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걸 여자 성도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도 여자가 참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가 페미니즘 공부에 앞장서야

저는 교회가 먼저 스스로에게 페미니즘을 적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 안에 뿌리 깊은 가부장 문화와 근본적인 신학 때문에 여성안수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보니 페미니즘을 언급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교회 내 여신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쉽게 수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여성들을 향하여 “참아라. 견디라. 인내해라” 같은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했고, 대부분이 이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명예남성’이라고 불리는 많은 여성들에게 페미니즘은 지금껏 ‘잘 버텨온’ 자신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차별을 당하며 살아왔던 여성들이 역설적으로 여성주의를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누구보다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페미니즘을 배우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적용해야 합니다. 여성주의 시각을 무시하고서는 교회가 존립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과 동떨어진 면이 많다 하더라도 이번 대통령 선거의 판을 뒤흔들 만큼 큰 이슈가 된 여성주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차별을 신학으로 정당화할수록 여성들은 더 이상 버티는 것을 포기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외쳐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그것을 위해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차별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주의와 가부장 제도에서 압박받는 남성도 괴롭게 합니다. 모두가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페미니즘입니다.

교회는, 특히 목사들은 성차별에 직간접으로 일조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오래된 적폐라 할 수 있는 성차별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

페미니즘을 몰랐던 때도 나는 페미니스트였다

이보경

성남YWCA 주임

한국YWCA연합회는 6월 28일(수)부터 30일(금)까지 2박3일간 '현장에서 만나는 페미니즘'을 주제로 2017 상반기 '여·세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10개 회원YWCA에서 모두 21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페미니스트 북카페 '두잉', 성평등도서관 '여기', 안양YWCA가 운영하는 이동식 성교육버스 '안양청소년성문화센터', YWCA 초기 지도자로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선 최용신 선생의 뜻을 기리는 안산 최용신기념관, 빈곤 아동 돌봄현장인 나눔공부방 등을 직접 찾아 배우는 과정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 만난 페미니스트들

나는 성남YWCA 여성·소비자부에서 일한지 올해로 4년차가 된다. 성평등운동으로 실행하고 있는 '공공시설 및 성평등정책 모니터링'을 맡고 있다. 연차가 늘어나면서 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성평등운동은 할수록 더 어려운 분야다. 그러던 차에 사무총장님이 'YWCA 여·세 아카데미' 참여를 권유했다.

'나의 눈으로, 여성의 눈으로 현장을 만나다'는 제목을 보면서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가, 기독교 관점에서 바라보는 페미니즘은 어떠한

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현장탐방 장소와 페미니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2박3일간의 여·세 아카데미는 만남과 현장으로 이뤄졌다. 만남의 시간을 통해 페미니스트 북카페 '두잉' 김한여일 대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이찬수 교수, 영화 '어폴로지' 속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국YWCA연합회 유성희 사무총장을 만났다. 또한 성평등 도서관 '여기', 안양시 이동형 성교육·상담버스 '청소년성문화센터', 최용신기념관, 빈곤아동을 돌보는 아현동 나눔공부방 등 다양한 현장을 탐방했다.



농촌계몽운동에 헌신한 YWCA 최용신 선생 기념관에 모인 참가자들 (뒷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필자).



성평등도서관 '여기'는 강남역 10번 출구를 형상화한 시민기억 존을 설치해 추모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바가 많지만 기억에 남는 두 분이 있다. 최용신기념관에서 만난 이수빈 학예사와 아현동 나눔공부방 김명희 목사다. 이수빈 학예사는 YWCA에서 활동하는 나보다 더 최용신 선생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기념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최용신 선생의 농촌계몽운동 정신을 전했다. 이 모습은 내게 또 하나의 운동을 실천하는 페미니스트로 다가왔다.

김명희 목사는 서울 아현동에서 빈곤아동을 돌보는 나눔공부방을 운영하며 녹록치 않은 재건축현장 주민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목사안수 합법화를 위해 서도 힘쓰고 있었다. 여성주의 시각으로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에 도전의식을 갖게 되었다. 나 역시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의 전환

이번 교육에서 특히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여성이 평화를 만나다'는 주제로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감폭력(減暴力)과 평화구축'에 관한 것이다.

세상이 평화롭지 못한 이유는 평화를 실천하는 방법이 다르고, 목적 자체가 자기 중심으로 설정되어있기 때문이다. 평화의 일반적인 정의는 폭력이 없는 상태이지만 한 번도 폭력이 없던 적이 없었기에 개인의 내면, 문화적 차원에서까지 폭력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평화구축을 이루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폭력을 감소시켜 나가는 '감폭력(減暴力)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앞서 얘기한 여·세 아카데미에 대한 궁금증은 페미니스트,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바라보는 내 안의 반감(反感)이기도 했다. 관련단체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들, 여성에게조차도 페미니스트라는 말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기독교 가치관과 페미니즘은 공유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했다. 이번 교육을 통

해 모든 의문이 풀린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 또는 여성만의 이익을 위한 시각이 아니라는 것. 여성의 인권증진과 우리 사회에 여전히 뿌리박혀 있는 성평등하지 않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는 페미니스트가 맞다는 것. 그리고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의 관점이 다양하긴 하지만 그 근간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는 성구와 합치된다는 것이다.

두 가지 변화

여·세 아카데미를 다녀온 지금, 나는 여전히 행정서류에 파묻혀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변화가 생겼다. 성남YWCA에서는 이번 교육에 함께 참여한 사무총장님의 결단으로 매달 모든 실무자가 한 번씩 돌아가며 오후 시간에 자기개발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그 비용은 성남YWCA가 지원한다. 개인적으로는 YWCA 운동성을 내가 맡은 일에 어떻게 녹여낼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할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평일 3일을 온전히 내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지역 활동가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활동현장을 방문하고, 공부하며 토론하는 뜻있는 시간이었다. '여성이 살리는 세상, 여성이 살리는 정의·평화·생명세상, 여성이 만드는 좋은 세상. 좋은 세상을 위해 함께하는 여성들의 세력,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여세!'라는 뜻의 '여·세'처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성이자 YWCA 활동가가 되기 위해 다음 교육에 더 많은 활동가들의 참여를 '강추'하고 싶다.

마지막 날 한국YWCA연합회에서 여·세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실무자들과 나는 참여소감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페미니즘은 나에게 어떤 단어인가?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단어다!"

멀지만 가까운 미래, 통일을 준비하자

강의 이미경 통일교육원 교수
정리 강선임 순천YWCA 회장·서부지역위원장

YWCA가 95주년 기념으로 추진하는 '평화순례 : 한라에서 백두까지' 준비를 위한 <길위의 평화학교 한라에서 백두까지> 4차포럼이 7월 6일(목) 연합회에서 열렸다. 이날 이미경 통일교육원 교수가 강연한 '북한 그리고 한반도 미래 : 통일 미래비전과 통일준비' 내용을 요약해 실는다.



이미경 통일교육원 교수가 '통일 미래비전과 통일준비'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날마다 남북관계와 북한상황을 보도한다. 우리는 북한과 가깝기도 하지만 멀고, 통일이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은 하고 있으나 정작 큰 관심은 없다. 통일된 한반도를 구체적으로 상상해본 일이 있는가? 왜 통일이 필요한지 생각해본 적 있는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두 체제가 합치면 어렵사리 일궈놓은 내 성과와 일상이 허물어질 것이라는 공포감이 들 수도 있다. 독일 통일과정처럼 북한 주민들이 대거 남한으로 이주해 취업, 주택, 환경 등 우리 사회 문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한편에 있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통일은 과정이 중요하다

한반도 통일은 분단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통일은 분단으로 굴절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편익을 창출하며,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한반도 전쟁 위험을 없애 동북아 평화증진을 도모한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민족주의와 강한 국가 건설과 복원을 내건 지도자들의 득세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 북

한은 사회주의 정치·군사 진지강화, 경제의 자력갱생, 동방의 핵 강국 지위강조 등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남남갈등 유발과 동시에 국제 공조체제 이완을 시도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앞으로 상당기간 군사적 긴장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미·북간 고위급 대화와 북한의 핵동결 선언, 북·중 정상회담 등이 이뤄진다면 급변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정권은 36년만의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권력승계를 완성하는 한편 당·정·군 기구개편과 측근인사로 친정체제를 강화해 김정은 1인 지배체제를 다졌다. 그러나 잦은 인사교체와 공포정치, 연이은 노력동원 등에 따른 주민불만 고조, 수해 등 각종 재해로 체제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통일은 정해진 공식이나 수순에 따라 진행되지 않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남북 예멘은 군사충돌을 동반한 내전방식에 의한 일방으로의 흡수통일이었다.

한때 합리적 통일방안으로 제기된 동독과 서독의 국가연합방식도 실체는 동독의 서독 편입으로 통일되었음을 기억할 때 통일은 과정에 더 중요하게 접근해야 한다. 통일의 접근방법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 행복, 생존, 번영이 보장되는 국민합의에 따라 민주평화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통일한국 과제와 YWCA

통일은 개인 차원으로는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취업과 소득, 기회를 늘리며 국가적으로는 규모경제를 실현하고 남한 자본과 기술력, 북한 자원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막대한 경제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다. 남북한을 합친 국토 면적은 220,258km²로 세계 222개국 중 85위, 인구 8천만 명으로 세계 7-8위 경제대국을 꿈꿀 수 있게 된다. 남북을 하나로 연결해 지정학적 약점을 극복하고

유라시아·태평양 공동번영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

전쟁위협과 민족역량 낭비를 없애고 상호보완적 자원활용, 단일경제권 형성,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에 이은 활동영역 확대를 위해 통일은 절실하다. 민족 차원으로는 역사적 정통성과 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반도 전쟁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꿈꾸는 것처럼 장밋빛 미래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이고 철저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미래 비전을 위한 과제는 첫째, 관용정신과 다문화주의 수용이다. 실리곤벨리는 어느 이민자의 독창적 발명품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관용과 다문화주의는 통일의 문화적, 국제적 토대다. 둘째, 경제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성장은 통일의 필수항목으로 우리 경제 3만달러, 북한 경제 3천달러 수준에 도달해야 통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셋째, 주변국의 후원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4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요충지로서 특정국가가 한반도에서 절대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통일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넷째, 실질적인 준비로써 통일교육을 확대·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방송인 임지현씨 재입북 사건이 시사하듯 북한이탈주민의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통합형 정착 지원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 한국시대 여성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탈북민 인식개선 등 가정과 지역사회 통일문화형성과 확산의 주체로서 YWCA와 같은 여성들의 역할이 기대되며 YWCA 회원들이 꾸준히 전개해온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운동 등 민간차원의 통일시대 정책추진과 제언자 역할이 절실하다. 한반도 통일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 긴 과정이며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부단한 진행의 과정이다.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통일환경이 바르게 조성될 때 비로소 분단에서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연해주 고려인마을에서 만난 '생명 평화'의 바람

최명희

전주 YWCA 회장

한민족에게 기억의 뿌리이자 기회의 땅이었던 연해주. 그 곳에서 서부지역위원회 '평화통일 해외연수'가 6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서부지역 YWCA 회장, 사무총장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반도 역사의 질곡과 함께하며 강인한 생명을 피워 올린 연해주 항일 유적지와 고려인 정착지를 중심으로 이뤄진 역사문화 탐방을 정리했다.

항일운동의 구심 '신한촌'

연해주는 한반도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과거 신석기시대 유물을 통해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문화와 동질성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 선조인 고구려와 발해가 문화를 꽃피웠던 지역이다. 하지만 발해의 멸망을 끝으로 한민족의 손에서 벗어나 그 후 오랫동안 우리에게 잊혀진 땅이 됐다. 유라시아 대륙 태평양 연안, 한반도 북쪽 함경북도와 접해 있는 연해주는 고조선에서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까지 한민족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조선후기 함경도 농민 13가구가 월경하면서 한인 이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전후부터는 수많은 애국지사 망명으로 항일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한인 거주지 '신한촌'은 가장 큰 집단촌으로 1910년 항일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애국지사들이 조국독립을 위해 외교노력과 의병조직으로 일본과 결전을 벌였으며, 이곳 학교와 각종 단체들은 신문을 통한 대외선전을 이끌며 민족계몽에 앞장섰다. 일본군은

1900년 '신한촌'을 무차별 습격해 한인 300여명을 살상하고 항일운동의 대부 최재형을 총살했다. 우수리스크에는 당시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중일전쟁 후 스탈린 정권은 한인이 일본의 첩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인민족주의자를 숙청하고 한인들의 강제이주를 결정했다. 연해주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던 18만여 명의 고려인이 목적지도 없이 빈손으로 쫓기듯 올라탄 시베리아 횡단열차(TSR)엔 굶주림과 공포뿐이었다.

이들의 종착지는 막막한 중앙아시아 벌판이었다. 그곳에서 고려인은 땅굴을 파서 엄동설한을 견디며, 황무지를 개간해 대풍작을 거뒀다.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고 배움의 길도 막힌 집단수용소 같은 그곳에서 모진 학대와 고생을 이겨내 3년 만에 소비에트 최고의 모범농장을 이루기도 했다.

소련 해체 후 1993년 러시아의회는 지난날 과오를 시인하고 명예회복법안을 채택, 거주지 제한이 풀린 한인들은 연해주로 재이주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연해주에는 5만여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으며 3만 명 정도는 재이주로 정착한 사람들이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역사적 재이주는 1937년 이후 단절된 연해주 역사를 새로 쓰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우리가 안아줘야 할 '우정마을'

극동지역 농업 중심지인 우수리스크는 과거 발해 5경 12부 중 말을 방목해 기르던 솔빈부가 있던 곳이다. 새파란 하늘과 너른 초원 위로 한가로이 말이 돌아다니고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평원과 기름진 땅의 환상적인 풍경에 우리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우정마을은 과거 군인들이 주둔했던 황량한 곳을 고려인들이 들어와 비옥한 땅으로 만든 곳이라고 한다. 한국주택건설협회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이주한 고려인들을 위해 주택 1,000채를 지을 계획으로 건축을 시작했으나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로 33채만 지었다고 한다. 현지 고

려인들과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은 동포애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이들이 준비한 한국 점심을 맛있게 먹고, 고려인 까짜 할머니의 메들리로 함께한 찬양은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을 하나로 뭉쳐지게 했다.

고려인 정착지 우정마을에 있는 동북아평화기금이 운영하는 솔빈문화센터와 로지나 서당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려인들의 2, 3세 교육과 우정마을의 자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로지나 서당은 우정마을 솔빈문화센터의 한글학교다. 이들은 직접 재배한 유기농 콩으로 청국장을 만들어 한국에 판매한 수익금으로 겨우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제강점기 안산 샘골마을로 내려가 농촌계몽운동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한 최용신 선생과 형편이 어렵던 시절 직접 쿠키를 구워 회원YWCA를 방문했던 박에스터 선생이 떠오르면서 우리 YWCA가 관심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우리말 교육으로 민족문화를 살리고 고려인, 조선족, 재외동포와의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화해와 상생을 통한 동북아 평화의 길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평화통일의 싹을 틔우길 기대하며

비행기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북한 하늘을 날 수 없어서 먼 거리로 돌아가야 하는 땅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고려인들이 시베리아와 평양을 거쳐 서울,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갈 수 있는 그날을 꿈꿔본다. 한 사람이 간 길을 다른 사람이 밟으면 더 단단해진다. 동북아 보고로 떠오른 연해주는 조상들이 밟은 땅이자 피눈물로 일군 땅이다. 에너지와 식량안보의 위기 속에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해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다면 극동지역에 새로운 '평화통일의 싹'을 틔울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이 외면해 온 고려인의 자활을 도우며 러시아에 살아있는 한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평화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YWCA가 작은 씨앗을 뿌렸으면 한다. ☀



고려인 우정마을 한글학교 '로지나 서당'



연해주 역사탐방으로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YWCA 노력 아시아 연대의 물꼬를 트다

김은영

한국YWCA연합회 국제협력위원회 간사

차별과 빈곤, 갈등과 폭력, 전쟁과 재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아시아 YWCA 각국 대표들과 청년들이 모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네팔, 대만, 일본 등 12개 YWCA는 6월 28일(수)부터 30일까지 미얀마 양곤에서 아시아YWCA 지역회의를 열고, 연대강화를 위한 운동정책을 교류했다.

2015년 제28회 YWCA 세계대회에서 제안된 지 2년 만에 성사된 이번 회의는 세계YWCA 창립 이래 첫 아시아 지역회의이기도 하다. 아시아에서 인도 다음으로 역사가 깊으며, 올해로 창립 126년을 맞은 미얀마YWCA가 주관했다. 말라야 하퍼(Malayah Harper) 세계YWCA 사무총장도 참석해 회비조정, 운동정책 등에 대한 아시아 회원국의 입장을 들었다.

한국YWCA연합회에서는 한미미 국제협력위원장(세계YWCA 부회장), 이은영 돌봄과살림위원, 배정미 중점운동국장, 김은영 국제협력위원회 간사, 김수진 대학·청년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일본군 ‘위안부’ 본부였던 미얀마YWCA 회관

주목받은 프로그램은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YWCA 노력’이란 주제의 각국 발표였다. 어느 지역보다 전쟁과 분쟁을 많이 겪은 아시아는 현재도 곳곳에서 내전, 무력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여성들은 수많은 전시 폭력을 당했고, 지금도 여성들의 피해는 진행형이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제

국주의 침략이 지나간 곳마다 여성들의 처절한 상흔을 남겨놓았다. 일본 식민지와 점령지 여성들은 전시 군 ‘위안부’로 아시아·태평양 곳곳으로 끌려갔고, 버려졌으며, 극히 일부 여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생환한 지 71년이 지났다. 그러나 가해국과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기는커녕 범죄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YWCA는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일본군 ‘위

안부’ 문제해결’에 관해 발표했다. 2016년 청소년회원 Y-틴을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 바로알기 운동을 벌이고, 청년회원들이 2017년 3월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 전시 성폭력 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한 활동도 소개했다. 창립 95주년을 맞아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YWCA 여성평화비’ (가칭) 건립도 설명했다.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일본군 ‘위안부’를 설치한 나라는 18개나 된다. 아시아지역 YWCA 회원국은 현재 16개국. 이번에 12개국이 아시아 지역회의에 참석했으니 일본군 ‘위안부’는 결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더욱이 이번 회의 장소인 미얀마YWCA 양곤회관은 1945년 당시 버마 만달레이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위안부’ 본부로 사용한 건물이었다.

일본인 사카키 야마 준(榊山潤)이 쓴 ‘버마일기’에 의하면 ‘량군(양곤) 시내에 조선 소녀들이 도착했고, 검은 천에 ‘아리랑부대 오다’라는 글자가 쓰인 건물로 들어갔다’는 증언이 있다. 전시 성폭력의 대표적인 피해 현장이자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장소에서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의논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시리면서도 몽클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에 백인들이 있다는 사실은 여성폭력의 실체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네덜란드계 여성 안 루프 오헤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 태평양 여성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1991년 8월 오스트레일리아 자택에서 우연히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최초로 공개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텔레비전으로 봤다. 오헤른은 피해자들과 연대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결심하고, 이듬해 도쿄에서 열린 ‘일본의 전후보상에 관한 국제 공청회’에 참석해 피해를 증언했다. 그 여성의 나라가 식민지든 아니든, 약소국이든 강대국이든 가리지 않고 성폭력은 자행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본부로 쓰였던 미얀마YWCA 양곤회관

YWCA의 주역 ‘청년’

한국에 이어 일본YWCA가 ‘오키나와 여성과 미군의 성범죄 현황’을 발표했다. 일본YWCA 회장과 사무총장은 전쟁 당시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국에 깊은 사죄를 하고, 앞으로도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YWCA가 국가 범죄에 양심의 목소리를 내어준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네팔YWCA는 12년간의 ‘인민전쟁’(내전)으로 일어난 전시 성폭력, 난민과 여성문제 등을 발표했다. 태국 YWCA는 종교·민족갈등으로 시작된 ‘남부분쟁’ 난민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쉼터제공, 심리지원, 인권교육 활동을 소개했다. 대만YWCA는 가정폭력방지 프로그램을, 인도YWCA는 자존감 향상, 경제역량 강화, 성교육, HIV·AIDS 교육을 중심으로 한 여성교육 활동을 소개했다.

이번 참가자 40명 중 절반이 30세 미만 젊은 여성으로 마지막 날에는 청년들을 위한 유스포럼(Youth Forum)을 열고 경제역량 강화, 리더십, 평화, 건강, 폭력과 인신매매, YWCA 참여 등에 걸친 젊은 여성의 역할을 토론했다. 미얀마YWCA 청년회원들은 축하공연부터 발표와 토론, 문화교류의 밤까지 함께하며 ‘Young’ 정신을 보여줬다. 다양한 사회배경과 문화에서도 여성운동을 펼쳐온 아시아 YWCA의 특별한 경험을 나누는 이번 회의는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하며 마무리되었다. 

“하나님 가르침 실천하는 YWCA 지지하고 사랑합니다”

대담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
글·사진 **신미희·이기원·문윤희** 홍보출판팀

이번 호에서는 1959년부터 1962년까지 대한YWCA연합회 총무를 지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을 만났다. 여성 지식인이자 여성교육자, 여성운동가로 한평생을 살았으며, 여성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2013년 YWCA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을 받았다. 7월 11일(화) 동교동 사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는 이명혜 회장과 유성희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희호 이사장은 새 정부가 실제적인 성평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운동 위해 YWCA 선택

요즘도 매주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찾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작년 초 낙상사고 이후 다리가 불편하여 남편 묘소에 예전처럼 자주 가지 못하고 있어요.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활동과 장학사업을 하고 있어요.”

1959년 한국YWCA 사상 첫 상근총무로 온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요?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이화여대 사회사업학과에서 낮은 사회학 원서강독을 하고, 밤엔 사회사업관에서 야

학을 열어 여성문제 상담을 했어요. 당시 이대 부총장이던 박마리아 YWCA 회장님이 ‘지금 총무를 찾고 있는데 이희호씨가 적합한 것 같으니 생각 있으면 이력서를 갖고 박에스터 선생님을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그때 YWCA에 총무가 없어서 고문으로 계신 박에스터 선생님이 사실상 총무 일을 맡고 있었어요. 박에스터 선생님을 만나본 뒤 이사회에서 총무선임 안건이 통과되어 일하게 됐어요.”

당시 ‘학문과 사회운동’을 놓고 고민하셨는데, YWCA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날부터 사회활동과 여성운동에 관심이 많았어요. YWCA에서 총무로 일하게 되면 학교에 남는 것보

다 여성문제에 대해 행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YWCA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죠.”

취임하자마자 ‘혼인신고운동, 축첩반대운동’을 펼쳤는데 계기가 있었는지요?

“그때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호적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고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첩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여성교육도 불공평했기 때문에 글씨를 모르고 혼인신고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여성권리를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YWCA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여성단체를 다 합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여성단체연합회가 함께 축첩반대 운동을 전개했죠.”

김대중 대통령과 결혼할 때 YWCA 선배들의 반대가 대단했다고 들었습니다(웃음).

“YWCA 선배들이 직접 제게 반대를 하거나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지요. 아무래도 남편의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반대했겠죠. 가족들도 별다른 반대는 없었어요.”

조아라 광주YWCA 회장 가장 기억에 남아

고박 4년을 총무로 일하고도 미국으로 망명한 1982년까지 상임위원을 유지하며 YWCA와 함께했습니다. 그 애정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YWCA는 전국 8군데에 조직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표적인 여성단체 였어요. 그러한 점이 자랑스러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가르침을 실천하기 때문에 YWCA를 지지하고, 가장 사랑하는 단체예요.”

YWCA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누구입니까?

“조아라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조아라 선생



YWCA 총무로 재직하던 시절 이희호 이사장

님은 독립운동도 하셨고, 광주YWCA 건물을 세우기 위해 미국까지 가서 모금활동을 하셨어요. 1983년 명예회장으로 물러나실 때까지 32년간 광주YWCA 총무와 회장으로 일하셨죠. 광주YWCA 주춧돌을 놓으신 분이죠. YWCA에서 조아라 회장처럼 열심히 일하는 분을 만난 것이 내 생애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가족법 개정 등 한평생을 남녀차별폐지 운동에 앞장선 이유는 무엇인지요?

“남녀차별폐지보다는 남녀가 동등하기 위한 운동을 펼쳐왔어요. 부모님은 6남2녀의 자녀를 평등하게 대해 주셨고 돌아가신 어머니는 제가 공부할 것을 항상 당부하셨어요. 그 시대 여성들은 많은 차별을 견뎌야 했어요. 기본교육도 받기 어려웠죠.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을 돕고 싶었어요. 남녀가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제 노력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첫 여성 외교수장이 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했는데, ‘성평등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여성정책은 무엇일까요?

“돌아가신 남편은 공직에 여성을 적극 기용하고, 여성부를 신설했으며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얻도록 했어요. 하지만 가정에서 이뤄지는 남녀차별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무엇보다 여성이 여성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없어져야 해요. 새 정부는 여성과 남성의 실제적인 양성평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대통령과 여사님은 남북평화를 위해 크게 애쓰셨는데,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제가 2015년 북한에 다녀온 것은 아이들을 위해 직접 쌀 목도리와 엠블란스, 인큐베이터, 수액 등 의료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는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중단되었어요. 이를 해결하려면 대화가 가장 필요해요. 대화 없이는 서로 오해를 풀 수 없어요.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화해하게 되요. 남북간 평화와 협력, 교류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해요.”

YWCA가 청년을 위한 새로운 사업에 앞장서야

기독교학생운동으로 청년운동에 매진하기도 하셨는데 YWCA 청년성과 청년정신,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는 만큼 청년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고스펙과 공무원 시험에 치중하는 청년들의 소식을 신문을 통해 읽었어요. YWCA가 만들어진 19세기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혼란의 시기였고, 우리나라에서 YWCA가 시작된 때도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으로 고통받던 시대였어요. YWCA는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기독교 정신으로 캠페인과 운동을 펼쳐왔어요. 청년 참여가 줄어들면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해요. YWCA가 앞장서야 해요. 청년들을 사랑하는 기독교정신을 보여준다면 청년 참여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명혜 회장, 이희호 이사장, 유성희 사무총장(왼쪽부터)이 인터뷰가 끝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사님이 태어난 1922년 세워진 한국YWCA가 95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YWCA는 환난을 겪고 핍박해진 한국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여러 활동을 했어요. 여성들의 권리를 알리고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운동도 벌여왔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남녀가 동등해졌지만 인간에 대한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동등하게 대할 수 있도록 YWCA가 앞장서서 노력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골목의 시간을 버티게 해준 힘은 신앙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기독교정신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시대 가장 필요한 기독교정신은 사랑이죠. 세상이 살기 어려워질수록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게 되는데 내가 가족과 친구, 이웃의 고통을 모른 척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갈수록 외로워지는 것도 내 안위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15회 | 한국여성지도자상

한국의 여성지도력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한국YWCA와 한국씨티은행이 협력하여 제정한 한국여성지도자상이 15회를 맞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기여한 여성, 우리 사회에 필요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전과 용기를 제시한 여성을 찾아주시시오.



The 15th Korea Women's Leadership Award

추천부문과 시상내용

- 대상(상패, 상금 2천만원) 전문적인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창조, 봉사의 정신을 발휘하여 여성지도력 향상에 공헌한 대한민국 여성
- 젊은지도자상(상패, 상금 1천만원) 전문성, 창의력, 헌신과 기여를 바탕으로 미래 한국여성의 역할을 열어가는 50세 이하 대한민국 여성
- 특별상(상패, 상금 1천만원) 세계화시대 문화다양성과 나눔가치를 바탕으로 사회통합 활동을 적극 실천해온 여성 또는 단체

후보자 추천

-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 위원
-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인으로 위촉한 개인
- 교육계 인사 및 대학총장 • 종교 및 사회단체 대표
- 언론기관 대표 및 언론인 • 20인 이상의 개인(동료사원 또는 일반시민)

제출서류 ※ 소정양식은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참조

- 추천서 1부 : 소정양식 • 명함판 사진 1장 • 후보자 이력서 1부 : 소정양식
- 후보자 공적서 1부 : 소정양식 • 증빙자료

추천접수

- 기한 : 2017년 8월 25일(금) ※ 우편접수 마감당일 소인 유효
- 접수처 : (우)04538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
- 연락처 : 전화 (02)774-9702 팩스 (02)774-9724 이메일 ywcamail@naver.com

발표와 시상식

- 발표 : 2017년 10월 초 개별연락
- 시상 : 2017년 11월 2일(목) 예정



스스로 성경이 된 '롤라드' 이야기 뮤지컬 '더 북' (The Book)

최기영

국민일보 기자

10월 31일 2017년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하루하루를 지나 수렴해가고 있는 날이다. 500주년을 맞은 종교개혁일은 그만큼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하다. 종교개혁은 역사에 거대한 진동을 남긴 만큼 많은 이들에게 각인될 만한 영웅들을 배출했다. 마르틴 루터, 존 위클리프, 안 후스 등은 조금이라도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이다. 이번엔 생소하기에 더욱 특별한 이름을 소개하고자 한다.

롤라드-독버섯, 중얼거리는 자들

1517년 10월 31일.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큰 변화를 몰고 온 종교개혁은 바로 '그 책'이라고 불리던 성경에서 시작됐다.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던 마르틴 루터의 망치소리가 울려 퍼지기 100여년 전. 귀족과 식자층만 알던 라틴어 성경이 영어로 번역돼 확산되자 가톨릭은 살인까지도 주저치 않았다. 이런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스스로 '성경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롤라드(Lollard). '독버섯' '중얼거리는 자들'이란 뜻의 단어다. 기독교자들에게 의해 경멸의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 롤라드의 외침이 매일 저녁 한 소극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크고 작은 극장 180여개, 매일 100여개 공연이 펼쳐지는 곳. 대한민국 공연예술 1번지 서울 대학로다.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입구부터 전단지 배포, 팬터마임, 버스킹(Busking) 등 예비 관객을 붙잡으려는 온갖 사전공연이 치열한데 한 소극장의 분위기는 달랐다. 무대에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절 건축물을 본 딴 장치가 들어차 있다. 암전이 지나자 500년을 거슬러 올라간 복장의 사람들이 올라섰다.

"칠후 같은 어둠. 헤매는 우리. 언제쯤 동이 트려나. 죄악 가득한 이 세상. 교회만이 안식처. 구원의 길 여기 있네." 종신 문화선교사들로 구성된 극단 문화행동아트리(대표 김관영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2017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연하고 있는 뮤지컬 '더 북(The Book)'의 한 대목이다.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연간 370여회에 달하는 장기공연. 공연장에서 만난 김관영 목사는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을 마음 편히 볼 수 있게 되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성경을 전파한 롤라드들의 희생이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뮤지컬 '더 북'은 크리스천들에게 익숙한 종교개혁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제화공, 가정주부 등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 전파를 소명으로 품고 화형대의 등불이 된 민초들의 이야기다. 번역된 성경을 지닌 것만으로도 목숨을 위협받던 롤라드들은 성경을 한 권씩 통째로 외워 감찰사제의 눈을 피해 광장에서 성경을 암송했다. 시민들은 이들이 암송하는 성경을 받아 적으며 복음을 새겼다.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성경이 곳곳으로 확산된 것이다.

객석점유율 99.9% 기적의 '힘'

극은 롤라드의 수장인 윌리엄을 통해 성경을 접한 뒤 롤라드가 된 소녀 '아이린'의 이야기로 막을 연다. 롤라드의 활동을 막기 위해 아이린과 그의 가족, 또 다른 롤라드들을 감시하며 호시탐탐 노리는 이단 감찰사제 베르나르의 교활한 모습은 성경을 펼치려는 자와 덮으려는 자 사이의 갈등 구도를 부각시킨다. 2014년 초연 당시 객석점유율 120%를 기록하며 기독교 뮤지컬계 '레미제라블'이란 찬사를 받은 이 작품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삽입곡 4곡이 추가되고 무대효과도 업그레이드됐다.

꼬박 2시간을 채운 공연이 막을 내린 뒤 소극장 입구에선 김 목사가 관객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전했다. "공연 없는 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대학로는 공연 없는 날로 통한다. 관객이 몰리는 주말에 공연 횟수를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뮤지컬 '더 북'은 다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연하고, 일요일은 쉬는 대신 특별복음집회를 무대 위에 올린다. 김 목사는 "일요일 오후 공연을 마친 대학로 문화예술인들에게 음주문화 대신 복음문화를 나누기 위해 준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1년 동안 370회에 걸쳐 공연하는 작품을 관객동원이 수월한 일요일을 포기하고 진행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상대적으로 수요층이 한정된 종교색 짙은 작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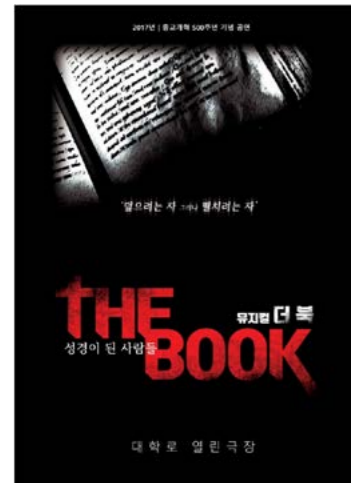


'더 북'은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전파를 소명으로 품고 화형대 등불이 된 민초들의 이야기다.

로선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북'이 보여준 지난 5개월간 객석 점유율은 믿기 어려울 정도다. 1월 105%, 2월 108%, 공연계 비수기인 3, 4월에도 각각 93%와 90%를 기록하며 평균 객석점유율 99%를 기록했다.

김 목사는 "25년 공연을 제작해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했다. 7월 10일까지 3만 2800여명이 관객석을 채웠다. 관람후기엔 '내 손에 성경 한 권이 들려지기까지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이건 진짜다', '배우들이 연기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삶을 토해내는 듯하다' 등 반응이 쏟아졌다. 관객석이 채워지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가늠케 했다.

뮤지컬 '더 북'은 서울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평일 저녁 8시, 토요일 오후 3시와 7시에 공연된다. 일요일엔 공연은 없지만 같은 장소에서 매주 오후 6시 '그 나무 아래(Under the tree)'란 이름의 특별 복음집회를 연다. 극단 아트리는 연말로 갈수록 관객이 몰리는 현상을 감안해 월별 차등 관람료를 책정했다. 1월 1만원으로 시작해 매달 2000원씩 더해 7월 관람료는 2만원이 되었다. 12월에 무대를 찾더라도 관람료가 아깝지 않을 공연이지만 웰메이드 뮤지컬 감상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이름, 가버워지는 지갑을 위로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보는 건 어떨까. 



뮤지컬 '더 북(The Book)' 포스터

7월 월례아침기도회



7월 3일(월)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월례아침기도회가 열렸다. 김경은 장로회신학대 교수가 '화해의 영성'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화해사역은 하나님 구원사역의 목적이자 완성이라면서 화해영성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다.

김필레 선생 제34주기 추모예배



YWCA 창립자이자 여성교육 선구자인 김필레 선생 제34주기 추모예배가 7월 13일(목) 정신여중고 김마리아회관 대강당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박혜성 교장의 사회로 동문출신 우진선 목사의 '생명의 길'이라는 설교와 정신여중 동문합창단 특별찬양, 김필레 리더십캠프 참가자의 소감발표로 진행됐다. 추모예배는 김필레선생 기념사업회 주최로 정신여중고 학생과 동문회, 한국YWCA연합회가 주관해 해마다 열고 있다.

2017년 양성평등주간 시상식 수상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이 7월 7일(금)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성평등 유공자로 원경숙 통영YWCA 증경회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차숙희 광양YWCA 행복을 여는 집 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강훈덕 서울YWCA양성평등미디어 모니터단 단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제3차 여성폭력관련 시설장모임



YWCA 제3차 여성폭력시설장 워크숍이 7월 13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23명의 시설장이 참여했다. 전국 회원YWCA가 운영하는 여성폭력관련 시설(가정폭력상담소와 쉼터, 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센터) 센터장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YWCA 성평등운동 공유를 위해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키다리학교 연대모임 활동



YWCA 청소년 토요일대안학교인 '키다리학교' 연대모임 프로그램이 8월부터 9월까지 5개 주제로 잇따라 열린다. 동해·안양·평택은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8월 11일(금) 강릉 경포호에서, 대전·천안·청주는 YWCA 이해를 주제로 8월 11일(금)부터 12일(토)까지 공주 동학사계곡에서, 군산·광주·익산·순천은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8월 15일(화) 익산 미륵사에서, 거제·부산·창원은 9월 2일(토)부터 3일(일)까지 청소년 자기주도성을 주제로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 고양·서울·성남은 평화를 주제로 9월 2일(토) 한강난지캠핑장에서 키다리학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대응 촉구



YWCA를 비롯한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공동행동은 6월 21일(수) 서울 광화문 외교부 앞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시민들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유역에서 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 방류되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해제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청년기자단 3기 오리엔테이션



청년의 눈으로 YWCA 콘텐츠를 만드는 한국YWCA 청년기자단 3기 오리엔테이션이 7월 15일(토) 연합회에서 진행됐다. 8명의 신입 청년기자들과 2기 멘토 2명으로 구성된 3기는 조한나 홍보출판위원의 '눈길을 사로잡는 SNS콘텐츠', 문윤희 홍보출판팀 인턴의 '카드뉴스 만들기' 강의를 듣고 앞으로 활동계획을 협의했다. 3기 기자단은 12월까지 활동한다.

정동제일교회, 북한어린이돕기 700만원 기부

정동제일교회 신도들이 YWCA 북한어린이돕기운동에 7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6월 29일(목) 정동제일교회를 방문해 송기성 목사와 교회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명혜 회장과 유성희 사무총장, 장미란 평화·통일위원장, 이



신용 평화통일위원 등이 참석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출범



YWCA를 포함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 시민운동본부 등 탈핵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858개가 모여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만들고, 7월 27일(목)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한국YWCA는 연합회를 비롯하여 서울, 남양주, 부천, 의정부, 고양, 수원 등 회원YWCA 회원들과 Y-틴 회원, 어린이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청소년 탈핵캠페이너 박상현 학생은 '청소년 발언'에 나서 미래 세대의 탈핵 의지를 전했다.

씽크머니 금융강사 심화·보수교육

올해 씽크머니 금융강사 심화교육과 보수교육이 잇따라 진행됐다. 7월 20일(목) 연합회에서 열린 심화과정에는 씽크머니 강사 43명이 참여했다. 다음날인 7월 21일(금) 남



산 문학의집 강당에서 열린 보수교육에는 23명이 참여해 강연과 조별 토론을 벌였다.

씽크머니 금융생활체험교실 오픈

씽크머니가 한국YWCA연합회 회관에 상설교육장인 금융생활체험교실(Public Financial Education Station, Pub-FIN)을 8월 7일(월) 개설한다. 금융생활체험교실 개설로 학교, 방과후학교, 회원YWCA에서 진행되던 씽크머니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할 수 있게 돼 청소년 경제금융교육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15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추천 접수

한국YWCA연합회는 2017년 제15회 한국여성지도자상 후보자를 대상, 젊은지도자상, 특별상 부문에 걸쳐 추천받는다.

한국여성지도자상은 여성지도력과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기여한 여성지도자를 격려하고 진취적 지도력을 발굴하고자 YWCA와 한국씨티은행이 협력하여 2003년 제정했다. 추천마감은 8월 25일(금)까지이며 추천양식은 YWCA 홈페이지(www.ywca.or.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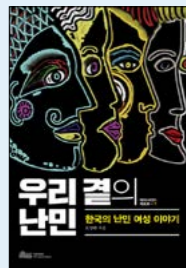
신간 안내

소심당 조아라



광주YWCA 소심당조아라기념 사업회는 여성인권운동의 선구자이자 항일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조아라 광주YWCA 명예회장의 일대기를 그린 만화 <소심당(素心堂) 조아라(曹亞羅)>를 펴냈다. 공성술 만화가가 집필했다. 이번 책은 초·중·고교와 도서관에 1만권이 무료로 배포된다. 광주YWCA는 추모 14주기인 7월 7일(금) 출판기념회와 강연회를 열었다.

우리 결의 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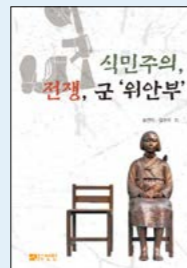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인 한국YWCA연합회 문경란 실행위원이 한국에 사는 난민여성들의 이야기 <우리 결의 난민> (서울연구원)을 펴냈다. 인권소의 지대에 놓여있는 소수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이야기로 엮은 서울연구원의 기획 시리즈인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첫 번째 책이다.

나는 맘먹었다, 나답게 늙기로



페미니스트이자 가수 이적의 어머니로 잘 알려진 박혜란 한국YWCA연합회 돌봄과살림위원회 위원이 에세이 <나는 맘먹었다, 나답게 늙기로>(나무를심는사람들)를 펴냈다. 박 위원은 한국에서 여성으로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답을 열고 일상 중심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이 드는 것을 권했다.

식민주의, 전쟁, 군 '위안부'



한성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김귀옥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이 <식민주의, 전쟁, 군 '위안부'>(선인)를 펴냈다. 김 위원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이 책은 한국과 일본의 군 '위안부' 관련 소송과 박유하 사건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역사의 진실을 찾고 있다.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7. 6. 1~6.30)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 기부 (6. 1~6.30)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고예린, 곽지영, 구정혜, 권순복, 권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귀옥,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병호, 김사라, 김상은, 김선형, 김수연, 김아련,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일곤, 김재연, 김장린, 김주영, 김주현, 김진용, 김태연,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경철,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숙, 박인희, 박진화, 박효정, 배유미, 배민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보람, 백정미, 백해진, 손서진, 손정원, 송록희, 신인숙, 심선미,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양종원, 엄효정, 오소영,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수, 윤명선, 윤수정, 윤정분,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은덕, 이영미, 이영숙, 이원호, 이은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주영, 이지은, 이현진, 이혜자,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강숙, 임진영, 임향옥,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장윤우, 전배자, 전하예,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채정희, 최수나,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함희경, 홍기자, 홍선심, 홍현정, 홍현하, 황홍백	1,818,000
회원YWCA	동해YWCA	1,345,102
어린이집	창원YWCA어린이집	356,280
개인 기부	김난주, 박경철, 엄에스터, 이종경, 이진용, 최혜실, 한영수	302,04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성광교회, 에스더목장, 약전평강교회, 정동제일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	7,016,000
기관, 단체	마포구청 기독교회, NH농협은행(명동지점), 르행(명동성당점), 레오니다스, 명성약국, 에세레, 켈라또(명동점), 전광수 Coffee House(명동성당점)	269,840
교육모금	신임이사교육 모금	28,000
합계		11,135,262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금난새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6월 27일(화)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2017 고양YWCA 문화나눔 '금난새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열었다. 고양YWCA 여성합창단의 합창으로 시작해 뉴월드챔버오케스트라와 박진희 바이올리니스트의 협연으로 품격 있는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지휘자 금난새의 재치 있는 해설로 청중과 호흡하는 클래식 무대가 되었다. 문화나눔을 위해 소외계층을 초청한 이번 공연의 수익금 역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남양주YWCA

이정은 팀장

준고령자 전산행정 실무과정



남양주YWCA 고령자인재은행은 6월 12일(월)부터 28일(수)까지 취업을 원하는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전산행정 실무과정의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을 이수한 20명의 남녀 수강생들은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부천YWCA

이지원 간사

양성평등주간 체험부스 운영



부천YWCA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로 7월 1일(토) 부천중앙공원에서 부천시여성인력개발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 등과 함께 '북한말 퀴즈대회&캘리그래피 엽서 만들기' 체험부스를 열고 시민들의 성평등과 통일의를 높였다. '부천을 위한 행복한 성평등, 함께 걸어요'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행사에는 부천시역 60개 기관·단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했다.

성남YWCA

김경진 간사

Y-틴 '청소년 안전' 캠페인



성남YWCA Y-틴은 6월 10일(토) 성남시 중원청소년수련관 앞마당에서 '청소년 안전, 우리가 지킨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성남시청소년재단의 문화소통 프로그램인 '청소년어울림마당'에서 선보인 이번 캠페인에서 Y-틴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안전권에 대한 퀴즈, 게임으로 시민들에게 청소년 인권의 중요성을 알렸다.

수원YWCA

정지영 간사

‘차 없는 도로’ 기념행사



제22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사람과 자연이 함께’라는 주제로 6월 10일(토) ‘차 없는 도로’ 기념행사를 열었다. 수원YWCA회관 앞 정자천로부터 명인중학교까지 150m 양방향 차길에서 탈핵 4행시 짓기, 재생에너지 체험, 시민 벼룩시장, 히포시(HeForShe) 캠페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로컬푸드 직매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등 10여개 단체가 함께했다.

안산YWCA

문성은 주임

청소년의 꿈을 담은 ‘의회 꿈의학교’ 개교



안산YWCA는 6월 3일(토) 안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의 꿈을 담은 ‘의회 꿈의학교’를 열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의회 꿈의학교는 정규과정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체험중심 교육을 하는 학교 밖 학교를 뜻한다. 학생이 주인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관련 이슈토론과 표결, 상임위원회 활동, 회의운영, 정책제안 등 자치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안양YWCA

김순태 간사

Y-틴 청소년인권 골든벨



6월 10일(토) 안양YWCA 회관에서 ‘Y-틴 청소년인권 골든벨’을 열었다. Y-틴 회원들이 유엔 아동권리협약,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인권 침해사례 등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골든벨 형식의 퀴즈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청소년 권리와 함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의 방식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평택YWCA

정혜근 간사

EM흙공으로 통복천 살리기



매해 환경의 달마다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평택YWCA는 6월 10일(토) ‘EM흙공으로 통복천 살리기’를 진행했다. EM흙공을 1주일간 발효한 뒤 Y-틴 키다리학교 청소년들과 함께 통복천에 던져 넣었다.

동부

거제YWCA

장미숙 간사

엄마 아빠가 함께 듣는 양성평등교육



거제YWCA는 6월 10일(토), 17일(토), 24일(토) 세 차례에 걸쳐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서 엄마 아빠가 함께 듣는 양성평등교육,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요리수업을 진행했다. 가정에서부터 뿌리 깊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는 것,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교육했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유용 미생물로 맑은 하천 만들기



유용한 미생물을 이용한 맑은 하천 만들기 사업으로 6월 14일(수), 28일(수)에 김해시 율하천에 EM을 던져 넣었다. 김해YWCA 이사과 직원, 김해하천 조사자들이 참석해 율하천 오염도를 조사하고 EM 효능을 교육했다.

EM은 앞으로 두 번 더 넣을 예정이며, 시민들이 생활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보급한다.

대구YWCA

정은영 국장

북한이탈주민 ‘희망나눔 배움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생활정착과 자립을 위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희망나눔 배움터’를 6월 14일(수) 북한이탈주민과 평화지기 12명이 함께 진행했다. 원예치료를 겸한 플로리스트 체험과 생활용품 직접 만들어보는 봉제 체험 등을 경험했다. 대구YWCA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마산YWCA

박주옥 부장

부모공감 가족성장캠프



마산YWCA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문화조성을 위한 자기성찰 프로그램 ‘부모공감 가족성장캠프’를 6월 30일(금)부터 7월 1일(토)까지 통영 휴내음글램핑에서 진행했다. 건강체조, 뉴스포츠, 미션포스트 등 가족게임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YWCA

윤영인 간사

탈핵콘서트 '영구정지는 처음이지? 그래, 탈핵이야!'



부산YWCA는 6월 18일(일)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등과 공동으로 부산 서면 주디스태화 앞에서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기념하는 탈핵콘서트를 열었다. '영구정지는 처음이지? 그래 탈핵이야!'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콘서트에는 7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하선규 한국YWCA 탈핵운동대사의 격려사, 탈핵을 향한 단체·정당의 발언이 이어졌다. 탈핵 염원을 담은 축하공연으로 40년만에 영구정지 되는 국내 첫 핵발전소 고리1호기 폐쇄를 기념하고, 탈핵세상을 향한 공동행동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양성평등프로젝트 '함께해야 행복'



양성평등 사회조성 프로젝트 '함께 해야 행복합니다' 활동가 양성교육을 6월 3일(토)부터 28일(수)까지 사천YWCA 강당에서 모두 7회 진행했다. 성인지 감수성 훈련,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우리 지역 양성평등 정책과 예산보기, 양성평등 눈으로 바라본 정책과 사례 등을 통해 양성평등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사천

YWCA는 양성평등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여성친화도시 사업 모니터링으로 성평등의식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양산YWCA

이나라 간사

'내 일(job)' 토크콘서트



양산YWCA는 지역여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8일(목) 삼양교회 비전센터에서 '내 일(job)'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1부에서는 정숙남 전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장이 경력단절여성의 자존감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주제로 강연했다. 2부에서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간호조무사 루티동, 놀이·인지치료 임미혜 강사, 직접 디자인한 엄마·딸 커플원피스 쇼퍼몰 키스 토끼 천여주 대표를 초청해 토크쇼를 진행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신의 일을 찾고, 경제활동 참여에 나서는데 도움이 되었다.

울산YWCA

김다혜 간사

창립 35주년 기념예배



울산YWCA는 6월 8일(목) 강당에서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열고, 50주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기념예배, 축하영상 상영, 박민철 울산극동방송 지사장의 축사, 우진숙 울산YWCA 이사의 축시, 울산YWCA 여

성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서정순 회장은 어지러운 세상에 울산YWCA가 생명의 바람으로 세상을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진주YWCA

고명정 팀장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촉구 캠페인



진주YWCA를 비롯한 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진주시민행동 회원 20여명은 6월 16일(금) 진주시내 주요거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과 거리행진을 펼쳤다.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탈핵캠페인을 열어 주민들에게 탈핵의제와 현황을 계속 알려나갈 예정이다.

창원YWCA

김진아 간사

회원특강 '미세먼지 없는 세상'



6월 16일(금) 창원YWCA에서 회원특강으로 '미세먼지 없는 세상과 산후수화분 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금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미세먼지 예방효과를 가진 식물 산후수로 화분을 만들었다.

통영YWCA

조혜원 사무총장

우리함께 성인지, 우리모두 양성평등

통영YWCA는 6월 8일(목), 15일(목) 성인지 예산제도

확산을 위한 성인지 교육 '우리함께 성인지, 우리모두 양성평등'을 진행했다.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 등 30여명이 참여해 성평등운동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삶과 일의 균형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포항YWCA

김수영 간사

노인사회활동 지원 참여자 간담회

6월 27일(화) 포항시 남구 티파니웨딩홀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각 시설에서 활동하는 어르신 154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포항YWCA는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 노인 사회활동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북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연극으로 전하는 녹색생활실천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강릉YWCA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 교육을 진행했다. 6월 26일(월)부터 7월 17일(월)까지 강릉YWCA 회관에서 10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연극에 관심 있는 시민 1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 후 에너지 절약에 관심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마을회관, 경로당을 찾아 에너지절약 실천방안 등을 연극으로 알릴 예정이다.

동해YWCA

전민지 간사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발대식

2017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발대식이 6월 8일(목)



동해YWCA 교육장에서 열렸다. 올해는 43명이 감시단원으로 위촉되었다. 박금성 영월청소년수련관장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지침, 청소년 보호업무 관련사항을 중심으로 감시단 활동내용을 안내했다. 감시단에는 청소년 보호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17세~24세)과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마다 단원을 모집한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여성창직 인문아카데미



서울YWCA는 6월 9일(금) 창조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여성리더 발굴 프로젝트 '여성창직(創職) 인문아카데미'를 개강했다. 2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7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진행해, 교육이 끝난 뒤에도 자조적 성장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 참가자들이 창직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왔다.

속초YWCA 정인숙 간사

정리수납전문가 과정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하고 속초YWCA가 주



관하는 정리수납전문가 1,2급 통합과정은 6월 26일(월) 개강했다. 경력단절로 경제활동이 힘들어진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재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이번 과정은 50시간의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으로 진행됐다.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수납컨설턴트 실무자들에게 노하우를 배우는 사후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취업알선도 지원되고 있다.

인천YWCA 김화연 간사

살림돌보미&정리수납전문가 교육

인천YWCA는 6월 21일(수)부터 7월 10일(목)까지 살림돌보미&정리수납 전문가과정을 진행했다. 옷장, 냉장고, 베란다 등 분야별 정리수납 방법을 익히고 이미지 메이킹 및 직업의식 교육을 통해 직업 전문성을 강화했다. 교육에 참여한 30명의 회원들 중 선발하여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춘천YWCA 경소희 간사

자녀로부터 독립하라!



토크콘서트 'WaW(Wisdom at Workplace) 세미나'가 6월 17일(토) 춘천YWCA 강당에서 '자녀로부터 독립하라!'라는 주제로 열렸다. 권영인 다원가족연구소장이 부

모와 자녀의 동거시기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부모세대의 노후빈곤, 자녀세대의 '캥거루족'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지난 4월에는 대학생, 청년, 직장들의 '직업과 진로'를 주제로 첫 번째 WaW 세미나를 열었다.

서부

광양YWCA 이현숙 간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보수교육



6월 17일(토) 광양YWCA 교육실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26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건강관리 서비스 역량강화와 경제원칙 준수, 모유수유와 전문유방마사지, 감염병과 안전사고 예방 등의 교육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YWCA 손유영 부장

한우농가 살리기 '어서오소 육구(肉口)데이'



한우 농가를 살리고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돕기 위한 '어서오소 육구(肉口)데이' 행사를 6월 9일(금) 광주YWCA에서 열었다. 3층 조리실에서는 한우요리 경연대회와 시식회를 통해 비선호 부위로 다양한 생소고기 요리법을 선보였다. 1층 대강당에서는 시민들과 함께하

는 '한우 골든벨'이 열렸고, 장흥산 한우 직매장을 개설해 질 좋은 소고기를 저렴하게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남원YWCA 김미정 간사

성인지 소통리더십 교육

6월 15일(목)부터 29일(목)까지 남원YWCA 교육실에서 '성인지 소통리더십 교육'을 3회에 걸쳐 진행했다. 생활속 양성평등 구현으로 일상과 문화의 성차별을 개선하고 남녀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평등을 지향하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목포YWCA 박수현 국장

신안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의 날



목포YWCA '신안1004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6월 30일(금) 신안군 8개교 33명의 중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2017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의 날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목포해양경비안전서 경비함 3009함을 찾아 조타실과 기관실 등을 견학하고 해양경찰 업무를 체험했다. 목포청소년경찰학교에서는 지문과 족적 현출 등 과학수사, 몽타주 작성, 시뮬레이션 자격을 체험하며 경찰직업을 두루 체험했다.

순천YWCA 추효인 간사

고령자 건물관리 전문인력 교육

순천YWCA 고령자인재은행은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으로 6월 9일(금)부터 22일(목)까지 건물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남성 구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YWCA가 여성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곳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10명의 지원자 모두 수료했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남편교실 프로젝트



전주YWCA는 2017 남편교실 프로젝트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를 6월 10일(토) 개강했다. 10월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될 이번 프로젝트는 아빠들이 자녀들과 다양한 체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빠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찾고 일·가정 양립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YWCA 이유리 간사

외국인근로자 한마음 행사



제주YWCA는 6월 17일(토)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자원봉사자 등 80여명이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행사 '아주 특별한 제주여행'을 진행했다. 지역 관광지를 돌아보면서 다양한 나라의 근로자들이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문화 체험으로 힘든 타국 생활에 활력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

중부

논산YWCA 이수정 간사

양성평등주간행사 영화 '옥자' 상영



논산YWCA는 7월 6일(목) '공평해요·평등해요·함께해요'라는 주제로 2017년 양성평등주간행사를 논산시네마에서 열었다. 영화 '옥자' 상영을 비롯해 성평등 의식 조사, 포토존 인증샷 찍기, 성인지적 관점의 영화이야기 등으로 진행됐다.

대전YWCA 이다정 간사

아나바다 시장 '행복나팔'



대전YWCA는 6월 14일(수) 나눔을 팔고 사는 '행복나팔' 아나바다 시장을 열었다. 주민들이 직접 부스를 운

영해 의류, 생활잡화 등 다양한 중고물품을 판매했고, 결혼 이주여성들은 직접 만든 베트남 음식을 판매했다.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대청호 농가에서 유기농 과일, 채소 등도 판매했다. 이날 수익금의 10%는 청소년을 위해 쓰인다.

세종YWCA 김정현 간사

탈핵 거리캠페인



세종YWCA는 6월 20일(화) 조치원주차타워 앞에서 탈핵 거리캠페인을 펼쳤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폐쇄 서명운동을 벌였다. 매달 마지막 화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불필요한 불을 끄고 촛불을 켜는 '별보는 밤' 캠페인도 홍보했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찾아가는 금융교육 씽크머니



제천YWCA는 청소년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금융교육 씽크머니'를 도심과 멀리 떨어진 제천시 수산면 수산초등학교에서 6월 13일(화) 진행했다. 초등

학교 6학년 34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기업가(CEO)가 되어 직접 물품을 만들어 판매해보면서 경제원리를 익히고 착한 소비 개념을 공부했다.

천안YWCA 정상란 팀장

섬마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천안YWCA는 7월 4일(화) 서산시 대신읍 용도 섬마을을 찾아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도서벽지를 찾고 있는 천안YWCA는 지역실정에 맞는 성폭력예방교육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

청주YWCA 김광식 간사

'반반한 상상' 여성주의를 배우다



청주YWCA가 여성주의와 접속하는 청춘페스티벌 '반반한 상상-여성주의를 배우다'를 시작했다. 6월 24일(토)부터 7월 15일(토)까지 4회에 걸쳐 여성주의 특강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성주의 잡담회를 연다. 7월부터 8월까지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히포시(HeForshe)캠페인, 8월부터 10월까지 여성주의 사진공모전을 위한 '여성주의 문화난장' 기획단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1만원으로 미래를 키우다 YWCA 1922 장학금

100주년을 앞둔 YWCA가
청소년, 청년을 위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1년에 한번 1만원만 내면
Y-틴, 대학·청년Y 30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1년에 1만원씩 5년간 후원

후원계좌

농협 301-1922-0000-31
(예금주 한국YWCA연합회)

장학금지급

2017년부터 100주년까지 매년 30명
Y-틴, 대학·청년Y 임원활동 장학금

문의

전화 02-774-9707(장학위원회)

후원에 참여한 분들(2017. 6.1~6.30)

구정란, 권인택, 김경미, 김재운, 문기석, 문진솔, 문한결, 민경준, 민경찬, 민승기, 박미선, 백수경, 상희규, 서윤재, 서혜준, 서효중, 신민우, 신상용, 신승우, 심영숙, 유성희, 이 한, 이경민, 이경순, 이기훈, 이명식, 이송연, 이원경, 이운정, 이은숙, 이혜린, 이희숙, 임윤미, 임진영, 정미자, 정운영, 천규승, 최선화, 홍선심, 익명, 포스트리지 / 경주YWCA, 김해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서울YWCA, 세종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산YWCA, 울산YWCA, 제천YWCA, 진주YWCA, 천안YWCA, 청주YWCA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작은실천~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만40세이상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 세대주, 만 41세~만64세 의료급여세대원
※ 검진주기 : 2년에 1회(직장가입자 비사무직 1년에 1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40세와 만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사
(B형간염검사, 골밀도 검사, 정신건강검사 등)와 생활습관 평가 등
의사상담을 실시

암검진

- 대상자 : 출생연도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 위암 (만 40세이상, 2년주기)
- 자궁경부암 (만 2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유방암 (만 4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간암 (만 40세이상 고위험군, 6개월주기)
- 대장암 (만 50세이상, 1년주기)

영유아검진

생후 4개월부터~7개월까지의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 활용 안내

「민원24」(www.minwon.go.kr)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관련 생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검진결과를 접수완료한 것에 한함)
- 신청방법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정보이용
동에서 작성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시 가능
- 대상면허 : 1종 보통면허, 2종 운전면허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안내

검진대상 : 9세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19세~24세는 다른 국가검진과 중복 불가
검사항목 : (기본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B형간염검사,
C형간염검사, 구강검사
(추가검사) 매독혈청반응검사, HIV항체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학교밖 청소년 검진관련 문의
(유선전화 : 1388, 핸드폰 : 지역번호+1388)

